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07 1981년9월1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September 1,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SEP 11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The Korea Times of Toront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Friday & Saturday issues are printed together.
Subscription Fee
$90/year. $8/month
구독료(선금)연$90. 월$8
영구구독료 $500.00
ISSN 0319 2962
2nd class mail No. 5248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416) 533—2361～4

한인회장단 인준받아

박인순·장영채·고순복씨

118명 절대다수로 찬성

29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토론토한인회 임시총회는 회장단 단일후보팀 박인순·고순복·장영채씨를 절대다수로 인준 이들은 83년1월까지 토론토한인회 살림을 맡게 됐다

이날 하오7시37분 사회자 문인식 이사는 참석인원이 118명이라고 밝히고 개회를 선언했다

총회 정족수는 100명이다

국민의례에 이어 함병섭 이사장대리의 개회사가 있었고 김순창 선거관리위원장(이사회 소속)은 후보등록 경위와 후보자를 소개했다

김위원장은 "7월24일 선거공고가 나간 후 모두 3개팀이 입후보 등록용지를 가져갔으나 1개팀만 등록을 마쳤다"고 말했다

후보자를 대표 박인순 회장후보는 간단하게 소견을 발표했다

김위원장은 회장단 후보를 인준하는 방법을 총회에 물었고 강신봉 전 한인회장의 제안에 따라 거수표결 방식이 채택됐다

김위원장이 "찬성하는 사람은 손 드십시오"하고 묻고 곧 이어 "만장일치 찬성"이라고 밝히고 하오 7시55분 인준을 선포했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위설명마저 생략한 김위원장은 이번에는 손을 들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도 않고 순간적으로 "만장일치 찬성"이라고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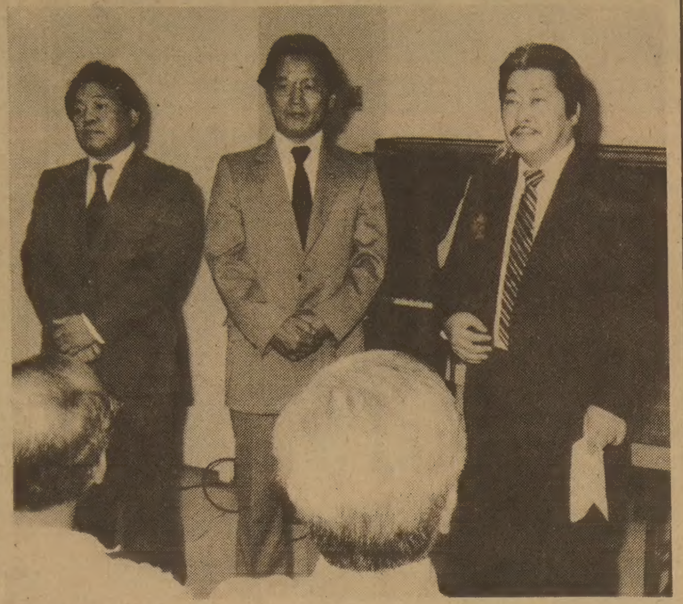
이어 김문량 전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에 앞서 박회장은 소견발표에서 "인구 3만 30개 이상의 교회, 50개 이상의 단체가 있는 곳이지만 지난 8·15 체육대회를 통해 우리도 뭉칠 수 있음을 알았다 앞으로 캐라반행사 미인대회 경로잔치, 어린이·어머니날및 한인의 날 행사등을 빠지지 않고 지키겠으나 이밖의 각 분야별 행사는 소관단체에 맡기겠다 예컨대 축구대회는 축구협회에 맡기는 식이다"고 말했다

박회장은 인준후 인사말에서 "한인회비 연 20달러를 안내는 회원은 한인회에 관심이 없는 증거다 가장 이상적 한인회는 몇몇 특정인사의 보조금보다 교민 모두가 회비를 내고 참여하는 한인회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교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회원들은 회비부터 내고 한인회일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채 부회장도 인준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큰 입씨름이나 논쟁 없이 진행된 회의는 31분만인 하오8시8분 끝났다


◇새 회장단으로 인준받은 박인순 회장(오른쪽), 장영채 부회장(가운데), 고순복 부회장.

새 회장단 약력

◇회장 박 인 순
·32년생(49세)·한양고교졸·한양공대토목과 2년중퇴·미8군 문화부 연예인단 공급사업·한국예총 연예인협회 이사 ·아시아·인터먼트회사 사장(싱가폴)·이민(68년9월) ·브라이언·박 회사 사장 ·한인회 이사(72년) ·오리엔탈팰레스 사장(74년9월～ 현재··) ·한인회관관리 부위원장(77～현재) ·씨알학교 이사장(79～80) ·장학재단 이사(78～현재) ·한인회과도운영위원장(81년7월)

◇부회장 장 영 채
·36년생(44세) ·단국대상경대상학과 졸업 ·서독요한네스·구텐벨크대학경영장 2년 수료 ·이민(70년) ·대한체육회캐나다회장 한인태권도협회장 호남향우회장 해군동지회장 역임

◇부회장 고 순 복
·34년생(46세) ·중앙대약학대 졸업 ·이민(67년) ·녹지마 제약회사 품질관리 책임자

◇회장단 후보 인준에 찬성하는 순간.

수사기관원도 준법해야

온타리오검찰 연방에 경고

(오타와)온타리오검찰총장은 연방검찰총장에게연방정부 경찰이나 정보기관은 온타리오 에서는 업무수행을 위해서라도 불법적행위를 할수 없다고 경고했다.

로이·맥머트리 온타리오검찰총장은 경찰도 다른모든 시민과 마찬가지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27일"일반시민들에게는 위법일 지라도 경찰은 업무수행상 어느정도의 불법행위도 할수 있다"고 경찰의 불법정보 수집행위를 비호했다.

로버트·캐프란 연방검찰총장은 "경찰과 정보기관원 은 정보수집 또는 수사상 꼭 필요할때는위법적행위를 할수있다"고 말했었다.

캐프란 총장은 수사기관원이 범인 추적상 필요한 속도위반이나 호텔 숙박계의 가명등록등은 허용될것이라고 말했으나 온타리오주 맥머트리 총장은 "경찰이 업무수행상 필요한 위법행위를 하려면 이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CMP의 비위를 조사한 맥도날드 위원회는 정부가 정보기관의 위법행위를 묵인하지 말라고 건의했다.

맥도날드위원회는 경찰의 도청등을 허용하는 연방및 주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맥머트리 총장은 "온타리오 에서는 새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대법원의 허락만 받으면 경찰은 합법적으로 전화도청및 서신검열등을 허용할수 있다"고 말했다.

트루도 방한 1주연기

일정도 단축 2박3일

(오타와)오타와의 외무성 소식통은 트루도수상의 방한일정이 6일간 늦춰져 9월27일～29일 2박3일간서울에 머물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체류기간도 3박4일에서 2박3일로 단축됐다

캐나다 수상으로서는 최초의 방한이 될 이번 한국방문은 애초 9월21일～ 24일까지였다

트루도의 방한뉴스는 한국일보토론토지사가 특종보도했었다

트루도 수상의 방한연기및 단축은 캐나다 경제상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상의 아시아여행예산을 삭감했다.

트루도는 26일 기자회견서 "이들 나라들이 캐나다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나라"라고 말하면서 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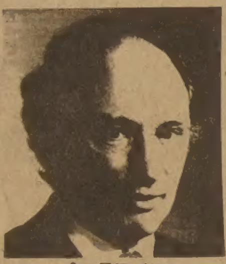
트루도는 지난 17일 보궐선거에서 자유당이 패한것은 그당시 악화일로에있던 경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상은 "현정부가 당면한 문제는 경제문제" 라고 처음으로 이를 시인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경제의 심각성을 감추려 했었다. 현재 문제는 인플레, 달러가치, 실업률, 이자율이다.

트루도의 이번 아시아여행 단축은 지난 여름 일부의원들의 트루도 아프리카여행 비난등에도 기인한다.

캐나다수상은 호주 멜본에서 열리는 영연방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한국및 필립핀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필립핀, 인도네시아방문은 이번에 취소했다.


◇트루도 수상

토론토 2대0 승리

동우회·친우회 양도시축구

(몬트리얼)토론토 동우회·몬트리얼 친우회 공동주최 연례 도시대항 친선축구시합이 지난 23일 300여명교민의 응원을 받으며 몬트리얼에서 열렸다.

이날 친우회장 정영섭박사의 시구로 시작된 몬트리얼학생 대표팀대 토론토 한인천주교회 학생팀의 축구대전은 월등한 실력차로 토론토팀이 2:0으로 승리했다. 몬트리얼팀도 작년에 비해 실력의 향상을 보여줬다.

이날 행사를 위해 한인회, 실업인협회, 총영사관, 선경물산, 몬트리얼 무역관등 단체가 트로피및 상품등을 지원했다.

백대장 예편

군개편 일환

(서울=연합)한·미 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백석주육군대장이 29일 예편됐다.

육사연병장에서 거행된 예편식을 끝으로 백대장은 30년의 현역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49년에 육사를 졸업한59살의 백대장은 한국동란때 기갑부대 지휘관 이었고,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과육사교장을 역임했다.

백대장의 예편 조처는노태우 보안사령관의 예편, 박세직 수도경비사령관의 해직에 따른 일련의 군내부 인사이동의 일환이다.

일본순시선

영해침범

(서울=연합)한국은 일본 해양순시선의 독도근처 영해 침범에 대해 강력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 소식통에 의하면일본해양 순시선은 지난28일(금)새벽 5시50분경 독도근해 500미터까지 침범, 10분간 관찰한 다음 남동쪽으로 사라졌다.

이번 영해침범은 77년이래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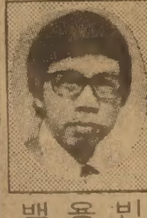
공로명 정치담당 외무부차관보는 마에다 토시카즈 주한일본 대사를 외무부로 소환, 일본 순시선의 한국영해 침범은 한국주권의 침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공차관은 오는 9월에 있을 한 일 각료회의를 앞두고 한일관계를 재정비 하고있는 이때에 이러한 사건의 발생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일본은 기회가 있을적마다 독도가 일본영토라고주장해 왔다.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각종보험

백 용 빈
SUNLIFE
(B)497—3800
(R)284—9052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 (416) 533—2361

각종 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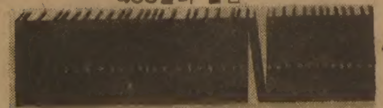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 시 성
(B)497—0600
(R)298—8558
D.R.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 생명교육보험
- RRSP(세금공제 은퇴저축)
- 은퇴연금
- 사업보험
- 화재, 자동차보험

김 흥 량
(B) 482—0166
(R) 624—2103
IMPERIAL LIFE
covers you for life

BRITANNICA

NOW 30 VOLUMES!
BRITANICA 3
대형백과사전(전30권)
GREAT BOOKS
세계문학전집(전54권)
400달러 할인

●특히 학자, 학생, 사업가, 부모들을 위해 30만종 이상의 각 방면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함.
오후5시 이후 신 용 목 배
●교인, 학교 각 단체회원에게 특별할인
●타 백과사전 소지자께 특별할인
●소년용, 아동용 백과사전도 있음
문의처 : 536—9082(B), 245—7522(R)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올해엔 누가… 노벨賞수상자 選定作業 한창

權威만큼 뒷말도 많다

스위든 王立학술원 11월發表앞두고 부산

매년 11월쯤이면 노벨상얘기로 세계가 떠들썩해진다.

문학, 평화, 의학, 화학, 물리학, 경제학등 6개부문에서 세계적 명예를 차지한 얼굴들이 거미줄처럼 퍼져있는 세계통신망을 타고 알려지기 때문이다.

지금 스위든 왕립학술원에서는 18명의 왕립학술원박사들이 상당수의 전문가 팀들을 거느리고이 「영예의 얼굴」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다.

6개부문 노벨상중 가장 오래됐고 또 가장 권위있는 것은 문학상.

스위든학술원은 특히 이 문학상 선정에 조심에 조심을 다하고있는 것이다.

스위든학술원이 자리잡고 있는 곳은 스톡홀름 번화가를 한눈에 내려다 볼수있는 스톡홀름 산등성이의 숲속.

고색 창연한 18세기 건물에 의자, 책상, 책꽂이, 꽃병등 하나하나가 세계의 권위를 산출하는 산실답게 품위가 당당하다.

6개의 노벨상중 문학상, 화학상, 물리학상만 스위든 왕립학술원에서 수상자를 선정하고 의학상은 스톡홀름의 캐릴라인 연구소에서, 평화상은 놀웨이의 노벨상위원회에서 각각 선정한다.

스위든학술원이 선정하는 3개부문중 물리학, 화학상은 지금까지 선정과정에서나 수상자 발표후에 별로 큰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문학상의 경우는 언제나 시비가 따랐다.

받을사람이 못받았다던지, 못받을 사람이 받았다던지하는 비판.

1901년 첫 노벨상이 수여된 이래 많은 대가들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영광을 차지하긴했지만 레오·톨스토이, 마크·트웨인, 제임스·조이스, 프란츠·카프카, 마르셀·프루스트등 세기적 작가들의 이름이 빠져있어 비판자들은 노벨상의 어딘가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1968년도 노벨상수상자인 일본인 가와바다·야스나리, 1974년 수상자인 스위든의 에르윈드·욘슨, 1977년 수상자인 스페인의 빈센트·알렉산드르등은 정치적 또는 지역적 배려가 개재된 무자격 수상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재 스위든학술원에 후보로 올라가 검토가 진행되고

◇1980년도 노벨평화상을 받은 아르헨티나의 페레스 에스키벨. 그는 너무도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인권운동가였으므로 노벨상위원회조차 그의 국적을 혼동해서 발표할 정도였다.

文學·평화·의학·화학·물리·經濟學등 6개부문

키신저·레둑토平和賞수상후 政治 오염 소리도

가장 오랜歷史가진 文學賞이 가장 權威있다고

있는 후보는 약1백50명쯤.

각국 각지역의 문학단체 또는 노벨상수상자들의 추천으로 학술원에 들어오는 후보자는 약6백명쯤 돼나 이들중 약 1백50명이 1차후보로 선정되어 학술원 회의실로 들어간다.

노벨상후보 추천은 문학단체면 어느 단체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작가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지만 다만 스스로 자신을 추천할 수는 없도록 돼있다.

추천해주는 사람이 없어 아예 스위든학술원 문전에도 못가본 대가도 있다. 독일의 대시인 라이너·마리아·릴케가 그 좋은 예.

그러나 후보물망에 올랐다가 떨어진 문학계의 거성들도 많다. 폴·밸러리, 스태판·조르쥬, 막심·고르키등.

화약을 발명해 많은 돈을 번후 노벨상 기금을 내놓은 알프레드·노벨은 유언에서 『수상자는 이상주의자 이어야 한다. 작품세계가 남보다 월등한 이상론을 그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이상주의가 불씨가 되어 상을 못받은 사람도 많다.

헨릭·입센, 아우구스트·스트린베르그, 토마스·하디등도 이 「이상주의」 때문에 상을 못탄 사람들이다.

이래서 노벨상 비판자들은 문학상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노벨문학상 비판자인 스위든의 울로프·라겔크란츠같은 문학비평가는 노벨문학상이 『문학을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임의로 선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학상은 노벨상 제정이후 여전히 가장 권위있고 문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꿈꾸어 보는 그런 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금까지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중에는 역사가도 있고 철학자도 있다.

앙리·베르그송(1927), 버틀랜드·러셀(1950), 장·폴·사르트르(1964)등은 철학자로 노벨문학상을 받았으며 테오도르·몸센(1902), 윈스턴·처칠(1953)은 역사학자 또는 정치가로 문학상을 받았다.

가장 많은 문학상수상자를 배출한 나라는 프랑스로 도합 11명.

다음이 영국, 독일, 미국순으로 돼있다.

미국작가로서 문학상을 받은 사람은 싱클레어·루이스(1930), 유진·오닐(1936), 펄·벅(1938), 윌리엄·포크너(1949), 어네스트·헤밍웨이(1954), 존·스타인벡(1962), 그리고 미국인으로 태어나 영국 시민으로 귀하한 시인 T·S·엘리오트가 있다.

문학상 선정담당의원은 6명. 10월 중순까지 1백50여명의 후보자를 5명으로 줄여 10월 마지막쯤에 최종 검토를 한후 11월에 발표한다.

그러나 사실 어떤사람들이 선정의원에 임명되며 어떤 기준에 의해 후보가가 선출되는가등은 전혀 비밀에 쌓여있다.

상금은 스위든 화폐로 8만8천 크로너. 달러로 환산하면 19만달러쯤된다.

이런 말썽에도 불구하고 문학상은 평화상보다는 말썽이 적다.

1973년 월맹의 레·둑·토가 키신저와 함께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후 평화상이 너무 정치적이란 이유로 상의 권위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미해군기 추락

조종사 1명 사망

(서울=연합)주한미군사령부는 미해군 A—7E전술비행기가 28일오전 서울남방 4 0km에 소재한 오산에서 추락하여 1명의 조종사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29일 발표에 의하면 사고난 비행기는 미 항공모함(미드웨이)소속으로 작전 수행 중이었다.

교 민 동 정

◆정혁조(목사 터버머리연합교회)=지난 7월1일 부임, 8월9일 지역교회 목사들과 노회목사들 임석하에 위임예배를 마쳤다. 정목사는 현재 터버머리의 백인계 두 지교회를 맡아 시무하고 있다

한 국 일 보
533-2361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⑸⓪

팔리·모왓 원작, 천 재 훈 옮김

나와 함께 음식을 차려놓고 폭소를 터뜨리며 활기에 차 있는 이 사람들은 아직 빈곤을 모르고, 이덴 엘델리 인디언들의 생존권을 생각할 만큼 처량하지 않았다.

이할미우트 사람들은 아직 여유가 있었고, 그들이 경험한 굶주림은 재난에서 오는 직접적인 죽음이어서 그들의 숫자는 적어졌지만 이덴 인디언을 파멸시킨 간접적인 굶주림 때문에 이할미우트 사람들의 심장부를 파괴시키지는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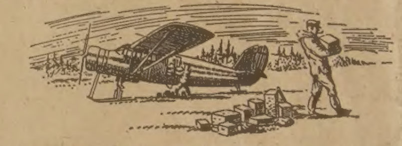
백인들이 내륙에 사는 몇명 안되는 에스키모들을 돕기로 결정한 지금에 와서 이들도 역시 사슴을 먹고 사는 다른 사람들이 걸었던 똑같은 길을 오래지 않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사슴을 먹는 사람도 없을 터이고, 좀더 지나면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인디언들과 수림에서 지낼 때 당국이 매해 두번씩 보내는 의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때 그 지역에서 결핵으로 죽어가는 인디언들의 숫자에 대하여 그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의사는 대답하기를 그가 인디언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했다. 병원은 만원이고, 또 인디언들은 치료해야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북극 전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십만달러를 들여 병원을 짓고 있다고 득의만면해서 설명해 주었다.

3대째 굶주려 내려온 결과로 생긴 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방법이 분명히 하나가 있다면 이 사람들을 제대로 먹이는 것이다. 이 생각은 너무 간단해서 정말로 타당성이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오래 전에 시도해 봤어야 했다. 이제 그들이 다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문제이다. 이 멸종되어 가는 인간들— 현재의 인디언들은 선교사들이 주장하듯이 신의 피조물이 아니고, 우리 백인들의 피조물이 되고 말았다. 결국 이론을 갖고 떠들어댄사람들의 말처럼 면역— 즉 굶주림에 대한 면역을 몸안에서 키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큰 병원이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Ⅷ. 주택과 언어

1947년 여름 내가 리틀레이크에서 이할미우트 사람들에 관하여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을때 프란쯔는 리틀레이크에 오래 머물게 되는것이 매우 초조한 눈치였다. 겉으로는 윈디베이 캠프에한스와 두에스키모 아이들에게 맡겨놓은 개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렇다고 변명했지만 이할미우트 텐트를 떠나고 싶어하는 진정한이유는 그가 사랑이라고는처음 느껴본 양녀 쿠니가 걱정스러워 지는것을 억지로 감추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웅덩이와 언덕을 넘어 프란쯔와 윈디 베이로 돌아오는 도중 어떻게 하면 내자신이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서



로 이해할수 있을까 궁리를 했다. 그러나 내가 극복할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내자신 당황할수 밖에 없었다. 프란쯔의 도움으로통역이 되었지만 말로 이들과 접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우리가 윈디베이에 돌아오자 쿠니와 아노틸릭은프란쯔를 매우 반겨주었고, 또한 동생 한스도 기쁘게 반겨주었다.

집을 비워둔 기간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어가지못했다. 물고기를 잡아서개먹이를 주었어야할 어망은 썩어서 찢어지고, 거의 못쓰게 되어버렸다.

개들은 굶어서 죽어가고 있었다. 다음 10일동안 나는 프란쯔와 함께 개밥을 보충하느라고 바빠서 에스키모를 떠나온 것을 아쉬워할 틈도 없었다.

내가 기회를 놓친것을아쉬워 하기도전에 대여섯명의 에스키모들이 보답방문을 와주어서 다행스러운일이었다.

우리집 근처의 산모퉁이에 여행용 캠프를 쳐놓고 그다음에 찾아오는 이누이트 방문객을 위하여 가을이 접어들 때까지 그들은 머물러 있었다. (계속)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한 국 일 보
구독 신청서
Please enter my subscription
NAME ....
ADDRESS .... APT
CITY .... PROVINCE ....
POSTAL CODE |_|_|_| |_|_|_| PHONE ....
* 한국일보 1년 $90.00, 반년 $46.00
*주 1회 주간한국 무료제공 ☐ 1년
*주 6일 (매 8면) 발행, 신속우송 ☐ 반년
Office Use Only Sub Date ....
Mail this card today !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신문판매처
고려식품
동양식품
반도식품
한국식품 (본점)
(동부)
" (서부)
서울식품
삼복식품
한국일보사
구독 및 광고문의
(416) 533 · 236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北傀, 美偵察機에 미사일攻擊

한국과 公海上空서 任務수행중

美國防省발표 "蘇製샘11" 數마일 빗나가

【워싱턴26日UPI=聯合】美空軍의 최신예전략고공정찰기 SR71기 1대가 26일「한국과 공해상」을 비행중 북괴군으로부터 미사일공격을 받은것으로 보이며 그러나 미사일은 정찰기로부터 수마일 빗나갔다고 미국방성이 공식발표했다。국방성 대변인은 이날「공해와 한국상공」을 비행중이던 미공군의 SR71정찰기의 승무원들이 기체에서 수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비행운과 함께 뒤이은 공중폭파를 목격、이를 보고해왔다고 밝히고 이정찰기가 아무런 피해없이 무사히 기지로 귀환했다고 덧붙였다。

레이건 우려、美 事態평가중

이 대변인은 그것이 미사일 발사였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그렇다』고 답변하고『미사일이 발사됐다면 이는 북한에있는 여러 기지가운데 한곳으로부터 발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공격을받은 SR71정찰기가 미사일 피격당시「한국과 공해상공」에서 일상임무를 수행중이었으며 정책상 구체적인 항로는 밝힐수없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또SR71정찰기의 정찰이 정기적으로 시행돼왔으나 이같은사건이 발생하기는 처음이라고 밝히고 미정부는 이사건을 평가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드윈·미즈 미대통령고문은 레이건대통령이 아직 국방성으로부터 사태를평가할 충분한 구체적인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미즈고문은 공격을 받은 SR71정찰기가 북괴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으며 한국과 공해상공을 비행중이었다고 말했다。미즈보좌관은 또 이번사건을 북괴의 도발로 간주하느냐는 질문에 이는 국방성의 평가에 달려있다고 답변했다。

"SR71機 日가데나基地 發進추정"

북괴로부터 공격을 받은 SR71정찰기는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신예 전략정찰기로 구형인 U2기를 대체하여 지난66년부터 정찰활동을 수행해오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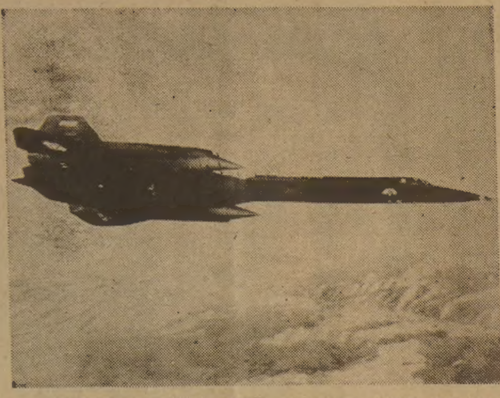
【東京27日UPI=聯合】27일 북괴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것으로 전해진 미공군 SR71(블랙버드)정찰기는 지난67년 이래 3대의 SR71 정찰기가 주둔하고 있는 일본 남쪽 오끼나와섬의 가데나 미공군기지에서 발진한 것으로 일본군사소식통은 추측하고있다고 共同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이 SR71 정찰기는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에서의 초계 및 정찰임무를 수행하고 있다。共同통신은 가데나에 주둔중인 3대의 SR71 정찰기들이 미 캘리포니아주 마치 공군기지에 주둔중인 미 제9전략정찰항공비행단의 분견대 가운데 하나라고 전하고 미 SR71 정찰기에 발사된 북괴 미사일은 아마도 유효고도가 5만4천피트인 소련제 샘11 지대공미사일이었던것 같다고 추정했다。이통신은 또 베트남전쟁기간중 제작된 미사일은 음속의 3배로 비행하는 최신예 SR71 정찰기를 격추시킬수 있는 능력을 갖고있지않다고 전하고 북괴의 방공시스템은 샘11미사일을 갖춘 45개의 미사일발사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방위청 소식통들은 3~4대의 SR71 정찰기가 가데나 공군기지에 영구 배치돼 있다고 말했다。

外務部서 論評보류 駐美대사 眞相파악

외무부는 미국의 高空정찰기가 北傀의 미사일공격을 받은데대해 즉각적인 논평을보류한채 駐美대사관에 진상을 파악、보고하도록 긴급지시하고 사태추이를 예의注視하고있다。



◇미공군의 고공정찰기 SR71。음속3배의 속도로 2만4천m의 고공을 난다。

SR 71諸元 ▲全長37·74m▲전폭16·65m▲총중량77톤▲최대速度 마하3·5 ▲순항速度마하2·6 (약3천2백km) ▲항속거리 4천1백km▲승무원 2명 (조종·정찰) ▲상승한도27km ▲항속시간1·5시간▲정찰능력 1시간당 26만km²

小銃彈보다 빠른 無敵 高性能諜報機

美SR-71機

公海서 1時間內 北韓全地域 정찰가능 / U2機대신 開發…高性能미사일만 探知

SR71機는 이 세상 어느 비행기로도 대적이 안되는 가장 우수한 성능의 미공군 스파이비행기다。2만4천3백84m의 고도를 음속의 3배속도로 날면서 시간당 26만km²의 지표를 샅샅이 정찰할수 있다。소총탄환보다도 빠르다。한반도 상공에 뜨면 북괴상공에 들어가지 않고도 1시간안에 북한전역의 정찰이 가능하다。미공군은 20대의 SR71機를 보유하고있다고 알려져있으나 어디에 몇대가 배치되어있으며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극비다。

색깔이 검어 블랙·버드(검은새)라고도 부른다。구형첩보기 U2機에 대신해 지난66년부터 스파이 비행기로 본격 취역했다。당시로서는 가장 우수한 비행기였던 U2機를 1960년5월1일 소련이 미사일로 쏘아 격추하자 이를 계기로 서둘러 개발한 최신예 고공정찰기다。U2機의 조종사 개리·파워즈는 낙하산으로 탈출、결국 체포됐으나 정치흥정끝에 석방됐었다。

SR71機는 고성능 미사일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탐지해내는것마저 불가능하다고 알려지고있다。승무원은 보통조종사와 정찰장교 2명이 탑승한다。

SR71機는 1964년 故 L·B·존슨 대통령의 발표로 비로소 세상에 정체가 드러났다。

SR71機가 그 성능의 일단을 공개한것은 지난74년 9월1일。美캘리포니아주의 비밀기지에서 출발한 SR71機는 약5천6백20km를 1시간56분에 날아 영국에 도착、세상을 놀라게 했었다。【鎬】

"南北체육인 會談응하라"

曺체육회장 北韓의 政治色반박 성명

曺相鎬 대한 올림픽위원회(KOC)위원장겸대한체육회 회장은 27일 남북체육인회담 제의에대한 북한측의 부당한 논리를 반박하고 정치색을배제한 순수체육인의회담에 호응해 줄것을 북한측에 촉구했다。

曺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KOC가 지난 6월19일과 7월27일 남북 체육교류및 국제대회 단일팀 참가를 위한 체육인교류를 제의한데 대해 북한측은 8월6일 정당 사회단체 연합성명을통해「高麗聯邦」을 추진키위한「統一促進大會」에서 이문제를 논의할수 있다는 엉뚱한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남북한 6천만 겨레와 해외동포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북한측의 부당성을 반박했다。

曺위원장은 남북한 단일팀 구성문제를 소위「高麗聯邦」추진과 분리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북한측의 태도는 순수한 체육분야에까지 정치문제와 결부시키는 불순한 작태라고 지적했다。

民正黨후원회 正式발족

企業 個人3百74명 1次9億募金목표

民正黨 후원회가 27일 汝矣島 全經聯회관에서 창립총회를갖고 정치자금 조달을위한 정당후원회로 정식發足했다。3백10개法人과 43개개인기업、그리고 탤런트 배우 영화감독등 연예인13명을 비롯 만화가 시인 체육인등 인기인21명을 포함하여 총3백74명으로 구성된 民正黨후원회는 이날 총회에서 회장에 李源京(59·合同회장) 부회장에 洪大植(55·한국유리대표) 金宗河(48·고려합섬대표) 金壽根(65·대성산업대표) 黃汀淵(53·遠洋漁業회장) 張英信씨(45·애경유지대표)등 5명、그리고 운영위원으로 徐成煥씨(58·태평양화학 대표)등 15명을 선임했다。★관련기사2면

民正黨은 정치자금법 5條2項에따라 28일 중앙선관위에 후원회결성을 신고할예정이다。

이날 창립총회가끝난후 열린 제1차운영위원회는 1차會費募金額을 9억~10억원으로 책정、法人 3백만원、개인5만~1백만원씩을 할당하여 9월5일까지 李源京회장의 口座에 手票나 電信換으로 入金시키도록 결정했다。

이날 선임된 운영위원과 간사명단은 다음과같다。

◆운영위원(21명)=徐成煥(58·太平洋화학대표) 張洪宣(41·極東석유대표) 金昌吉(66·대호원양대표) 安東善(63·신한주철회장) 河泰(64·우미나이론대표) 李厚寧(56·쌍미실업대표) 文順模(70·한염해운대표) 安元宗(71·동진산업대표) 全應奎(58·청방대표) 李炳益(57·동방산업대표) 朴鍾律(52·동촌건설대표) 朴憲東(60·대동건설대표) 金泓植(53·금북주대표) 金重源(34·한효건설대표) 李起彬(49·한국집바대표) 간사=安昌九(53·회계사)

倫理綱領을 採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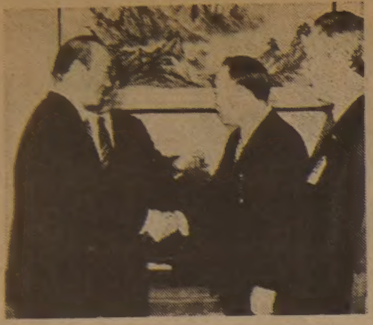
平統常任委회의 活性化대책 모색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는 27일 하오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常任위원회를 열어 平統자문회의의 운영및 활동의 활성화방안및 구체적 사업계획을심의、결정하고 8천여 자문위원들의 행동지침이될 5개항의 자문위원倫理綱領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前文과 5개항으로된 이윤리강령은 前文에서 평화통일의 當爲性및 召命의식을 강조하고 本文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자문위원의 자세정립、자문위원들의 품위유지등 생활지표、所任완수를위한 자기충실과 부단한노력、국가사회에 공헌할 좌표등을 강조하고있다。

平統자문회의가 발족된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의常任委는 市·郡·區단위협의회를 9월초에 발족、단체별 개인별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단위협의회의경우 지역실정에 맞도록운영하되 지역내 자문위원상호간의 친목과 有關기관과의 유대강화등을통해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맡도록 결정했다。

金貞烈 상임위원장겸 수석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상임위원 4백48명이 참석、구체적인 심의에 앞서 李範錫사무총장의 경과보고와 정부관계기관으로부터 최근의 北韓동향、全斗煥 대통령의「6·5제의」및 아세안 5개국순방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등을 청취했다。



다께이리委長 全대통령 접견

全斗煥 대통령은 27일 상오 청와대에서 訪韓중인 일본公明黨의 다께이리·요시가쓰(竹入義勝)위원장등 일행 5명을 접견하고 환담했다。【사진】

이자리에는 李鍾賛국회운영위원장과 마에다(前田利一)駐韓일본대사가 배석했다。

平統간부에 任命狀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의 의장인 全斗煥 대통령은 27일 하오 청와대에서 平統자문회의의 각分科위원장및 幹事、지역및 職能대표등 운영위원과 상임위원대표45명에게 임명장을 주었다。이자리에는 平統의 金貞烈 수석부의장과 李範錫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영부인李順子여사와 함께 平統상임위원 4백90명에게 만찬을 베풀었다。이날 만찬에는 丁來赫국회의장、俞泰興대법원장、南悳祐국무총리와 각政黨대표、市道知事들이 배석했다。

豫算낭비 없도록하라

全대통령 不公正去來기업 一罰百戒로

全斗煥 대통령은 27일『정부예산의 불필요한 낭비경향이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는만큼 정부각부처는 예산절감을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하고『정부의 사업계획은 展示효과위주의 졸속한 사업계획을 피해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안목에 입각해 실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不公正거래기업은 一罰百戒로 다스리고 기업의 勞賃滯拂에 관해서도 충분한 사전지도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內閣에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관계장관으로부터 금년도2·4분기심사분석보고를 들은뒤 추진이미흡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세워 補完해줄것을 당부하고 추석을 앞둔 물가대책、歸省客안전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할것등을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정부가 조속한 안정을 회복하고 그기반위에서 발전할수있게 된것은 전체국무위원을 비롯 모든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치하하면서『그러나 국가기강을 바로잡아 법과 질서의 존중을 완전히 생활화해야하며 부정부패、청탁행위는 안보적 차원에서 다스려져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앞으로는 特權層、權力層이라는 용어가 더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不信풍조를 해소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이것이 국민화합을 이룩하는 바탕이될수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北歐4國·EC巡訪 南총리 오늘 登程

南悳祐국무총리는 오는 31일부터 9월12일까지 스웨덴、덴마크、핀란드、벨기에등 유럽 4개국과 歐洲共同體(EC)본부를 공식방문하기 위해 28일 상오 KAL便으로 출국한다。

南총리의 유럽4개국 순방에는 李範錫통일원장관、金東輝외무차관、琴震鎬상공부차관등 경제기획원、상공부 고위관계자등 8명이 공식수행하며 趙重勳대한항공 사장등 기업인들도 비공식으로 수행한다。

國會오늘 外務委 韓日外相會談청취

국회는 28일 외무위를 열어 盧信永외무장관으로부터 韓日外相회담결과에 관한 보고를 듣고 對日정책전반에 걸쳐 정책질의를 벌인다。

社會漫評

더「짜고」…또「짜고」… 하겠구나…

地平線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미국의 스파이위성은 소련군 병사의 손에 쥐어져있는 수류탄도 알아볼수 있다고한다。지금 우리의 머리위를 돌고있는 미국의 군사용 위성은 40개도 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이중 상당수가 스파이 위성이다。스파이 위성의 상당수는 남·북극 궤도를 돌고 있어서 몇시간에 한번씩 똑같은 지역을 감시하도록 돼있다。말하자면 우주 패트롤이다。

▼가장 낮게 떠있는 스파이위성은 사진정찰위성으로 1백60킬로 상공에서 상당히 정밀한 사진을 찍어 보낸다。그러나 스파이위성의 약 절반은 적도위 3만7천6백킬로 상공에 고정배치돼 있다。소위「정지위성」이다。이들은 한 지역을 24시간 감시하면서 소련 미사일의 早期경보임무를 띠고있다。또한 전파 감시용의 고도로 정밀한 정지위성도 5~6개 있다。

▼미국의 스파이 위성 발사는 10여년전보다 훨씬 줄고 있다한다。위성이 고도로 정밀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위성이 필요없게 된것이다。토성을 관측해서 자료를 보내온 보이저2호의 놀라운 관측장치도 사실은 이런 스파이 위성에서 이미 쓰이고 있는 것이다。보이저 2호는 이러한 장치들을 싣고 20억4천만km의 허공을 날았다는게 다를뿐이다。

▼보이저 2호가 4년에 걸친 우주비행을 단 2·5초의 오차밖에 내지않고 해내고 예정된 관측을해낸 뒤에는 컴퓨터라는 인공두뇌가 있다。컴퓨터야 말로 미국 산업기술의 꽃이라고 할만한 것이다。이제는 손톱크기의 칩한장이면 8천字를 기억할수 있게됐다。또 한 타이프를 치듯 보통 글로 지시해도 움직일수 있게 됐다。글을 읽는 컴퓨터다。

▼미국 위스콘신대학의 세이리그교수는 컴퓨터기술에『제2의 혁명』이 시작되고 있으며、마치 산업혁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있다。보이저 2호를 움직이고있는 두뇌는 主컴퓨터만 3개가 보조컴퓨터와 똑같이 움직이면서 모든 지시를 내리고있다고 한다。만일의 고장에 대비한 안전장치다。작년 한해 미국내시장에서만 5백20억달러의 판매고를 올린 미국 컴퓨터산업의 기적이다。

▼미국의 위성관측기술이나 컴퓨터기술은 계속 개발돼가고있다。우주왕복선에서 쏴올리는 다음 세대의 스파이위성은 우주스파이전쟁의 새시대를 열것으로 생각되고있다。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비서」라는 직업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예언도 나오고있다。이 과학기술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무엇인지 반성해 보지않을 수없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 408
은: 온스당 US 8.97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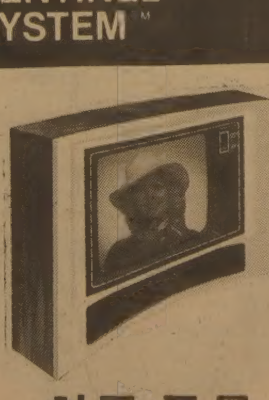
=치과개원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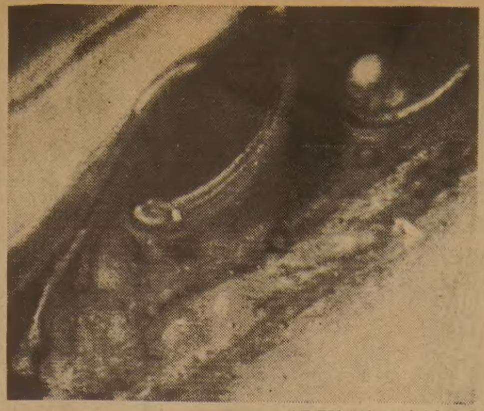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하기장소에서 치과개원을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개원일시 : 9월1일부터(오전8 : 30~오후5 : 30)
장 소 : 586 EGLINTON AVE. E. (Bayview×Eglington)
전 화 : 483-9515(B)

치과의사 최 해 경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인 검진으로"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특별염가

취급 품목
TV, RADIO
STEREO
ZENITH, SANSUI
AKAI, TOSHIBA
삼성사 668 BLOOR ST. W. ☎ : 533-4125



◇土星 대기의 회오리 美우주탐색선 보이저2號가 지난23일 土星으로부터 2백70만㎞ 떨어진지점㊨, 2백30만㎞지점㊧을 통과할때 촬영한 土星대기속의 갈색 空洞주변의 회오리。이 회오리는 토성상층부의 구름으로 들어가는 입구인것으로 추측된다。 【패사디나26일AP聯合=聯合】

보이저2號、土星黃色구름지대 無事통과

1만2천장送信

【패사디나(美캘리포니아州)26日UPI聯合=聯合】美우주탐색선 보이저2호는 26일 土星의 최근접지점 黃色雲상공을 무사히 지나 土星의 뒷면 어두운부분으로 빠져나가는 도중 우주선 내의 카메라를 上下左右로 이동시켜주는 플랫트폼(설치대)이 불의의 고장을 일으켜 약 2시간동안 地球로의 사진전송이 끊어졌다고 보이저2號의 우주탐색작업을 관장하고 있는 패사디나 제트추진연구소(JPL)의 리처드·레저박사는 보이저2號가 시속 5만1천㎞로 土星의 최근접지점을 통과한후 토성뒷면의「암흑지대」로 돌진하는순간 카메라플래트폼이 원인불명의 고장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카메라플래트폼이 上下이동은 하지못하고 있으나 左右이동은 아직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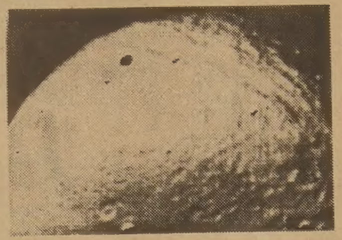
보이저2號의 우주탐색임무를 지휘하고있는 레저박사는 보이저2號가 카메라고장을 일으키긴했으나 당초 촬영、지구에 송신하기로 돼있었던 토성사진 1만8천5백장중 1만∼1만2천장의 사진을 이미 지구에 보내와 토성의 신비를 규명하는데는 별지장을 주지않을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그러나 토성뒷면의「암흑지대」로 들어가는순간 카메라의 렌즈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향함으로써 이「암흑지대」를 촬영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보이저 2호는 이에앞서 신비에 싸인 토성환이 종래의 추정보다 훨씬많은 무수한 작은 고리로 구성돼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진들을 보내왔는데 보이저2호가 보낸 사진들은 앞서 보이저1호의 사진보다 훨씬 정밀한것으로 토성환의 고리들이 토성표면에 드리운 연필선만한 미세한 그림자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보이저2號가 보낸 중요사진들은 ▲앞서 보이저1號의 사진에의해 확이 세겹으로 비꼬인것으로 알려졌던 F환이「완벽하게 정상」이며 ▲하이퍼리온위성의 토성을 향한 각도가 당초예상과 빗나갔으며 ▲토성환내부에서 정체불명의 가느다랗고 어두운 구조물들이 불과 수분사이에 형성되고있으며 ▲페드위성표면에 수수께끼의 거대한 검은반점이 있는것 등을 밝혀냈다。

카메라 한때 故障…探索 99%성공적

이제 외롭고 永遠한 旅行길에 올라



◇美우주선 보이저2號가 촬영한土星의 위성중의 하나인 테티스의 모습이다。54만㎞상공에서 촬영한 이사진 좌측상단에 보이는 검은점은 직경88㎞의 이위성최대의 크레타인데 이위성의 직경은 6천90㎞로 추정되고있다。 【패사디나26일=AP】

카메라 正常회복

【패사디나(캘리포니아州)27日AP UPI=聯合】土星의 뒷면에서 한때 카메라플래트폼(설치대)에 고장을 일으켜 사진전송을 중단했던 美우주탐색선 보이저2號는 26일밤 정상을 회복한것같다고 패사디나의 美과학자들이 27일 밝혔다。

이들은 보이저2號가 土星으로부터 天王星을향해 점점 멀어져가며 정상활동을재개했음을 시사하는 여러징조들을 보내오고있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이고장이 보이저2號의 우주탐색임무를 크게 저해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이저계획담당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때 고장을 일으켰던 보이저2號의 카메라설치대가 26일밤 지상의 신호에 따라 조금 움직였다고 밝히고 어느정도로 카메라설치대가 정상을 회복했는지는 알수없으나 과학자들은 보이저2號가 패사디나에 있는 제트추진연구소(JPL)통제센터에 예정된 사진을 다시 전송할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학자들은 보이저2號가 처음에는 약간의 기내기온강하로 카메라설치대를 움직이도록하라는 지상명령에 따르지 못했으나 계속되는 신호에 마침내 움직였다고 밝혔다。

앨·힙스 JPL대변인도 26일밤 보이저2號가 보내온여러신호들은 보이저2號가 카메라설치대에 더욱압력을가하도록 低速기어를 사용하라는 JPL의 명령에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다고 밝히고「아직까지는 모든것이 무적」이나 기술진들은 아직 카메라가 어느정도 빨리 그리고 얼마만큼 이동하고 있는지 알지못하고있다고 덧붙였다。

그는『첫번째 징후들을 살펴보건대 카메라가 적당한속도로 이동하고있다』면서 그러나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하며 정확한 확인은 나중에 나올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메라설치대가 고장을 일으킨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있는데 과학자들은 보이저2호가 진흙덩어리와의 충돌로 흔들렸을 가능성등 여러가능성들을 생각하고 있다。

蘇의 使嗾받은「레이건 試驗」

미사일發射는 美의「리비아機 被擊보복」가능성

北傀 SR71機도발 워싱턴 觀測

中東戰땐 南侵위험 짙어

蘇와 급속한 접근도 의미

【워싱턴27日=曺淳煥특파원】북한이 26일 美SR71정찰기에 地對空 미사일을 발사, 미국에 매우 도발적으로 나왔다。

북한은 새로발족한 레이건 共和黨행정부를 먼저도전적으로 시험하고 있다。

美SR71 정찰기가 북한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는데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것은 북한이 전쟁일보전의 군사모험주의노선을 채택했다는것을 뜻한다。

미즈 대통령고문은 이사건을 레이건 대통령에게 알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와인버거국방장관과 이사건을 논의했다는것이 사건의 심각성을 뒷받침했다。

사건이 일어난 타이밍도 사건의 심각성을가중한다。

SR71 정찰기는 거의 주기적으로 북한영공을 침범하지않고 근해상공을 비행하면서 북한의군사동태를 살펴왔다。

북한은69년EC121미정찰기를 격추한이래 SR71기의 비행을 말로만 비난、공격해오다가 이번에 행동으로 옮겨 미사일을발사했다는것은 그들의 對美및 對韓정책에 무엇인가변화가 일어났다는것을 뜻한다。

미국방성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지난주미군기에의한 리비아機격추사건을 연결짓는 것은 순전히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논평했으나 두사건이 결코 무관한것이 아니다。

미해군기에의해 격추된SU22리비아공군기는 蘇製전투기이며 리비아가 사실상 소련의 지중해전초기지역할을 해오고있어 소련위신에 적지않은 타격을 주었다。

레이건 대통령의 위세는 그만큼 위로 올라갔다。

북한조종사들이 리비아조종사들을 훈련시켰다는것도 널리알려진사실이다。

간접적방법이지만 먼저 레이건의 시험을 받은 소련의 브레즈네프가 어떤 반응을 보일것으로 관측된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의 당돌한 도발은 소련과 상의없는 독자적인 것으로만 볼수는 없을 것이다。

美機 被擊됐으면 蘇콧대 높아졌을것

만약 정찰기가 북한미사일에의해 격추되었다고 가상하면 사리는 분명해 진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소련제이니만큼 소제 SU22機 피격설욕을 넘어 소련의 콧대는 높아졌을 것이다。현재와 같은 美蘇간의 팽팽한 대립에서는 힘에는 힘、위세에는 위세로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발사를 소련과 사전협의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길이없으나 한가지분명한것은 중공이 매우 싫어한일을 북한은강행했다는 사실이다。

중공은 그들의 안보와경제발전을 크게 좌우할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는나머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것을 원치않는다。

이미 평가되어온 것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북한의 호전성을 견제하는 중공영향력의 폭이 매우 좁다는 것이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중공과 북한간의 관계가 겉으로나타난 것보다 더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것 또한 드러났다。

그와반대로 북한과 소련과의 관계가 아주빨리 접근하고 있다는것을 이번사건은 실증한다。

북한과 소련은 앞으로5년간에 지난5년간보다 무역량을 10% 증가하는 경제협력협정을 최근 平壤서 서명했다고 미국무성관리는 밝혔다。

북한—소련의 대단한 경제협력이다。아마도 양자는 경제적접근에만 그치지는 않을것이다。

미국의 中性子彈 생산을 두고 북한은 미국의한반도 전쟁도발정책이라고 극렬히 비난했다。그러나 중공은 유럽에서 美蘇간에 군사균형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미국을지지하고있어 북한과 중공의 틈이 넓게벌어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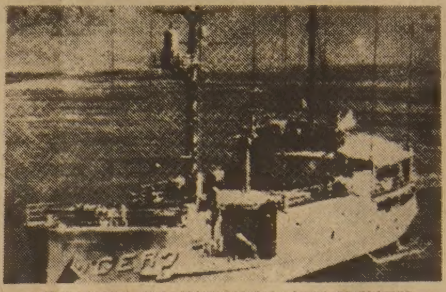
북한은 왜 과격한 對美도발정책으로 나왔을까。

북한이 과신하고있는 남한의 이른바「그들의지혁명세력」을 고무하며 안정을 찾아가는 全斗煥정부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저의도 이번사건의 바닥에 깔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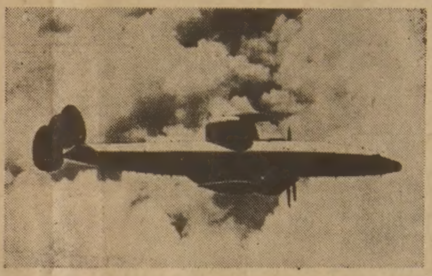
레이건행정부 발족이래 韓美양국이 결속하여 미국의 反蘇연합아시아정책이 기틀을 잡아가고있어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꿈이 신기루처럼 멀어져가는데 초조해진나머지돌파구를찾으려는 몸부림으로볼수있다。

中蘇사이에서 그런대로 중립을 지켜온 북한이지만 이번사건은 소련진영으로 훨씬 기울어졌다。

이것은 중동에 미사일발사 공중전이 일어나자 한반도에 미사일이 발사되듯이 중동에 전쟁이 터졌을때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 남침할 가능성이 짙다고 보는 미군사전문가들의 분석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68년 1월23일 元山만앞공해상에서 나포된 푸에블로號。



◇69년 4월15일東海공해상에서 격추된 EC121機。

푸에블로號 납치등 틈만있으면 도발

이번 美공군 SR71정찰기에대한 공격사건처럼 휴전발효이래 북괴군에 의한 크고 작은 불법분사도발은 많았다。

그중에도 63년 유엔군헬기 1대납치를비롯 67년우리해군함 唐浦號격침, 68년 미해군정보수집함 푸에블로號납치, 69년 미해군 EC121정찰기 격추, 76년 8·18 도끼 만행등은 세상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대사건들이었다。

특히푸에블로號사건과EC121기사건은 공해상에서 자행된 북괴의 對海對空무분별 도발행위였다。

미해군정보수집보조함푸에블로號가 피납된것은 68년1월23일 하오 1시45분 東海의 공해상。북괴의 초계정 4척과 미그기2대는 83명의 승무원을태운 푸에블로號를 영해침범이란 트집을잡아 元山港으로 나포했던것이다。이후 國赤등의 끈질긴 송환교섭끝에 미측이「영해침범」을 공식시인하고 로이드·부커함장등 푸에블로號 승무원들이 선체는 북괴땅에남긴채 판문점을경유,자유풍에 안긴것은 그해 12월23일이었다。피납 3백36일만의 일이다。

이사건은 세계최강국인 미국이 북괴엔 한낱「종이호랑이」일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아이러니를 남기기도했다。

또한 이번 미공군 SR71기공격은 북괴가 미군기에 감행한 4번째 공격인 동시에 미사일공격으로는 두번째였다。북괴는 69년 4월15일 미공군EC121기 1대에 미사일을 쏴 격추시켰다。

이때 미국방성은 31명의 승무원을태운 同機가 동해상에서행방불명됐다고발표했는데 북괴는 당일로 북괴영공서 미군정찰기1대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었다。【敎】

事態추이注視 日側反應

【東京27日=宋孝彬특파원】일본정부는 美전략공군의 SR71전략정찰기가 북괴의 미사일에의해 공격당한 사실을 중시하고 추이를 주목하고있다。

한국정부가 이번에열린 외상회담에서 한국의방위는 美日의 방파제라는 관점에서 60억달러의 공공차관을 요청하고있는 이때북괴의위협을 입증하는 SR71기에대한 미사일발사사건은 일본정부로하여금 한국측주장을받아들이지 않을수 없는 계기가 될지 모른다고 외교전문가들은 분석하고있다。

레이건정부는 소련의 위협을 주장하는 한편 북괴의 남침위협과함께 이를감시하기 위한 고공정찰활동을 계속해왔으며 북괴는이에 대해 지난7월말 영공침범이라고 규정하고 정찰활동의 중지를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괴의 이번 미사일발사사건으로 미국이 한반도 부근에대한 SR71고공정찰기의 활동이 계속되고있음이 드러났고 이것은 한반도의 막대한긴장고조를 입증한 결과라고 외교전문가들은 분석했다。

國共合作 제의

鄧小平 26년이후 3번째

【홍콩26日AP=聯合】중공당부주석 鄧小平은 중공의 정권과 대만의 국민당정권이 과거 두차례의 협력관계를 거울삼아 3번째의 새로운 협력체제를 구축할것을 촉구했다고 홍콩의 중립계신문 明報가 25일 보도했다。

鄧은 최근 중공을방문한明報편집인 루이스·차와 北京의 인민대회당에서 회견을갖고 이같이촉구하면서 양측은 1926∼1927년 군벌퇴치를위한北伐과 1937∼1945년의 中日전쟁때 협력관계를 유지한바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또 자신이 중공의 국가주석직에 취임하는것이 어떠냐는 明報側의 제의에대해『자격이 없는것은아니나 복잡한 공무를피해 몇해 더살면서 국가와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자신의견해를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중공은 이제 세계1백20여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있으며 매년 다수의 외국원수들이 중공을 방문하고있다』고 지적하면서『이들을 영접하는 의전절차만으로도 정력을 크게 소모하는 시기가됐다』고 말함으로써 국가주석직취임이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1968년 故 劉少奇주석이 숙청된이후 폐지된 국가주석직의 부활문제는 아직도 검토단계에 머물고있다고 말했다。

앙골라 大規模침공 안해

南阿共首相 앙골라主張 부인

【요하네스버그26日AP=聯合】피터·보타南아프리카공화국수상은 26일 남아공군의 대규모 앙골라침공보도는 앙골라에의해 과장·왜곡된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영국·서독등 주요 서방국들은 이날 남아공에 대해 앙골라영내로부터 즉각 군대를 철수시킬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타수상은 이날 남아공의회에서 남아공군과 앙골라군간에 충돌이 벌어진것은 사실이지만 남아공군이 남부앙골라깊숙이 침입했다는 앙골라측 주장은「지나치게 과장된것」이며「사태의 진상을 완전 왜곡한것」이라고 말했다。

東京證市 株價暴落

美偵察機 被襲說에

【東京27日AP=聯合】27일 상오 東京주식시장의 주가는 美초음속 정찰기 SR71機1대가 26일 북괴미사일의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에 자극받아 폭락상을 보였다。

전날 35·07포인트나올랐던 2백25개주식 다우·존즈 평균치는 이날아침 76·29포인트나 내린 7천7백76·00엔을 기록했다。

메아리

安定의 轉機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러셀은 역사를 이해하는 태도의 한 단면을 이렇게 밝혔다。「잘릴레오와 동시대인들은 그의 발견보다 30년 전쟁이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보았다。오늘 우리는 그 전쟁이 30년간의 허사인데 반해 갈릴레오의 발견은 역사를 크게 변화시킨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돌이켜 보면 일제35년은 우리 민족에겐「역사의 정지」였고 그후 36년은 격랑을 헤치며 살아온「현대사의 전진」이었다。광복의 8월은 우리에겐 잘릴레오의 발견만큼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광복 36년의 격동은 1세기의 변천과 맞먹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8월은 우리 미래를 설계할 초석이 놓여진 달이다。해방후 숱한 혼란을 겪으면서도 의연하게「시련속의 성숙」을 살아왔다。특히 지난해 격동의 역사는 그 어느때보다 힘겹게 새겨진 하루하루였다。

10·26후의 혼란은 이제 과거사의 한교훈으로 접어졌다。지난해 8월27일을 깃점으로 우리 사회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또 한번의 대전환을 우리는 의지로 이겨냈다。

새공화국출범에 앞서 과도기라고 할수있는시기에 제11대 대통령에취임하면서 全斗煥 대통령은「새 민족사의 進運은 누구도 막을수없다」고 선언했다。정치풍토의 쇄신、지속적인 경제성장、자주국방의 확립、정의사회구현、통일을 향한 외교라는 국가발전의 대명제를 세우고 제5공화국의 기틀이 잡혀졌다。새공화국 탄생을 위한 험난한 진통과 시련은 국민의 의지로 거듭 극복됐다。구시대를 청산한 국내안정과 함께「불편한 관계」로 표현되던 한·미관계를 정상회담을통해 정상화시켰다。아세안순방은 한국의 위치를 다시 평가하게했고 새로운 지역외교의 章을 열어 놓았다。

국가적인 자신감이 뒷받침이 되어 全대통령은 북한측에 평화통일 제의를 보내 우리의 통일노력을 세계에 밝혔다。8·27취임 이후 변화의흐름은 내일의 전진을 기약하는 디딤돌이되었다。

역사란 반복되지않고 전진한다는 신념이 있는한 앞으로 부딪칠 어떤 난관의 고비도 우리는이겨낼수 있다는 확신을 지난1년의 역사를 통해 배웠다。

◇만리장성 거니는 카터 中共을 방문중인 카터前대통령과 부인 로절린여사가 26일 만리장성을 거닐고 있다。【北京26日AP聯合】

오늘의 歷史 <28일>

▲獨문호 괴테출생 (1749)
▲蔣介石·毛澤東 重慶서 회담 (1945)
▲트루먼, 대만정책 7원칙발표 (1950)
▲民族日報사건에 宣告 (1961)
▲佛·알제리 협력의정서 조인 (1962)
▲美, 워싱톤서 최대 흑인차별 반대 데모 (1963)
▲南北조절위 평양측, 대화중단 발표 (1973)

教皇、法衣밑에 방탄복착용

狙擊사건이후 경호원 말듣기로

【로마=柳錫烈통신원】로마교황이 방탄복을 입게 될것같다。바티칸 교황경호 담당자들은 그동안 여러차례교황에게 방탄복을 착용할것을 건의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하지만 지난 5월13일의저격사건이있고난뒤 교황요한 바오로2세는 방탄복을 착용해달라는 경호원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바티칸당국은 로마에있는 무기및 방탄복 제조회사인 가르치아(GARCIA)社에 교황이 법의밑에 착용하게끔 특별고안된 방탄조끼를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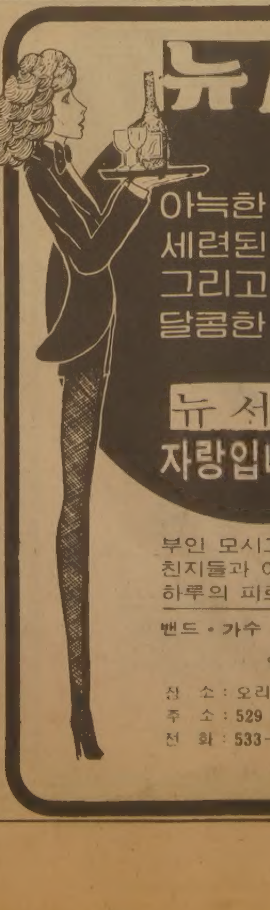
◇교황이 입게될 방탄조끼 가르치아(GARCIA)社 대표 가르치아씨가 교황을위해 특별고안한방탄조끼를 보여주고있다。

海外토픽

人間의 말을 活字로찍어

日서개발, 言語文明 일대 變革예고

【東京27日=聯合】인간의 보통속도의 말을 전자장치로 기억、전자타이프라이터가 그대로 활자로 찍어내는 획기적인 음성입력 장치가 일본전기회사(NEC)에 의해 새로 개발되어 26일부터 제작、주문을 받기시작함으로써 인간언어문명에 일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 · 가수 · 무용단 매일 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팰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서울대학교동창 골프및 디너모임

1981년9월5일 토요일

골 프

시 간 : 오전10시30분
장 소 : CASTLEMORE GOLF CLUB
AIRPORT RD.상
HWY7에서 북쪽으로 4마일

회 비 : $30(디너까지 포함)

상 품 : GROSS 1, 2, 3등
NET A, B, C조에 각 1~3등
LONGEST, NEARST, MHG
LADY상및 각종 참가상

디 너

오후6시30분
CHINA VILLAGE
1850 DUNDAS ST. W.
ETOBICOKE, ONT.
WHARTON + DUNDAS교차점
$10(디너만)

동문및 가족의 다수 참가를 바라며 디너에만 참가하는 동문이나 가족도 환영합니다.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골프와 디너를 따로 꼭 신청해 주십시요.

신청및 연락처 :
한 상 훈(270-7465)
이 창 수(579-3684 WHITBY)
이 창 희(639-3139, BURLINGTON)
김 태 진(244-5124)
김 진 호(274-0153)
신 경 순(389-0862, HAMILTON)

서 울 대 학 교 동 창 회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영업시간
: MON. TUES. WED. SAT. 9:30-6:00
THURS. FRI. 9:30-9:00
●신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MRS. PARK
202 SPADINA AVE. ☎ : 363-6077

문제점 많은 敎科書 어떻게 고쳐야하나

出版協주최세미나 學者등 百餘명 참석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2종교과서 발행조합이 마련한 교과서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28·29양일간 충남 溫陽에서 열린다. 교과서 문제전반을 다룬 최초의 세미나인 이번모임에는 학자및 관계관 1백여명이 참석, 우리나라 교과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과서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된다.

『교과서의 내용』이란 주제발표를갖는 慶熙高 崔榮□교장은 『동일계 교과서가 도내용, 차례, 범위, 깊이가 다르고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현제의 교과서에 대해 연구 검토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울大 李元淳교수는 『입시만을 의식한 일시적 방편으로 교과서를 획일적으로 國定化하는 것은 교육의 非본질적인 편의주의가 교육의 본질을 그르칠 어리석음을 범하는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재의 교과서가 종수제한으로 구태의연함을 면치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와했다.

서울大 李應百교수는 『교과서의 문장』이란 주제강연을 통해 『교과서의 전문용어 특수용어는 정의가 명확하여야하고 한자로 된 인명·지명은 국어의 주체성에 입각, 우리 자음으로 읽어야 한다』고 밝히고, 『교과서의 문장은 이같은 바탕에서 지나친 미사려구나 복잡한문장이 아닌 간결하고 학년수준에 맞는 어휘로 서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서의 문장에 대해 대표토론을 한 金敏洙 高大교수도 李교수와 같은 의견이다. 교과서의 한자는 교육적으로 판단, 공칭한 실험과 검토를 근거로 한 학번적으로 시정하고 주체성을 살리는 기본적인 외래어표기법은 國書正書法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것이 金교수의 뜻이다.

『교과서의 체제와 품질』이란 강연을하는 新丘전문대 李鍾國학장은 교과서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전문기구로서 문교부산하에「국립교과서연구소」의 설립을 제안하고『개화기의 교과용도서가 거의 菊版체제였던것이 현재도 같은 크기로 출판되고있음은 선진외국교과서의 큰 판형에 비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옛날보다 신장이큰 현재의 중고등학생은 시각이 넓고 坐高가 높아 4×6倍判이 알맞다는 것이다. 李학장은 편집도 삽화·사진·판화등을 활용, 읽고 쓰는데 편리하도록하고 활자의 크기·行間·字間·語間및 行의 길이등이 속독효과에 미치는 영향에대해 연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대표측근에 나서는 서울大 柳景□교수는 『교과서의 판형은 교과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말하고 갱지를 쓰고 있는 교과서용지도 개선, 체질개선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李학장과 柳교수는 똑같이 교과서 인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柳교수는 주간지나 월간지의 색도 인쇄는 선진국에 가까운 기술을 발휘하고 있는데도 미술교과서는 24색 색상표하나 제대로 인쇄못하는 까닭을 추궁했다.

韓國문화사대표 呂運鶴씨는 『활자체의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하고 가로쓰기할자는 제한된 지면에 많은 활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공간을 처리한 長體의 개발이 시급하다고주장했다.

외국의 교과서를 중심으로「교과서의 제도」를 분석하게될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郭相萬씨는『교과서의 국정제는 國民나국가가 의도하는 정책을 획일적으로 신속히 교육하는데 편리한 제도지만 그 내용의 단일 또는 독선으로 지역성을 살리거나 학습내용의 다양화를 기할 수 없다』고 지적, 전인적 발달을 지향하고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검인정제가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검인정제는 단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각학교가 지역사회와 학교의 실정에 알맞는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 선의의 경쟁으로 교과서내용을 충실과 질적 향상을 기할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大 鄭然泰교수는 교과서집필진은 교과교육의 방향, 학생들의 발달단계, 개발된 교육기술등 교과교육가로 전문성과 자질을갖춘 사람이어야한다』고 전제, 우선 개혁시기에 편승, 검정합격외 요행을 낡은 사고방식은 버려야하고 출판사도 영리만을위한 모험적 투자를 지양, 교과서개발에 장기적계획과 투자를 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鄭교수는 검정신청도 현행대로 몇년에 한번씩 받아 합격본을 5종이내로 제한하는것 보다는 매년실시하고 집필과 편찬에 충분한 여유를 주어야한다고 덧붙였다.

梨大 李楨洙교수는 『개방적 자유국가는 대부분검정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들고 자유민주국가를 위한 쇄신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교과서제도도 先보다 得이 많은 검인정제를 택하고 국정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鄭相萬씨는 교과서 공급제로도 교사들의 잡무배제를 위해서라도 학생들이 티킷등을 가지고 공급소에서 자유구입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들었다. 【李炳日기자】

◇李鍾國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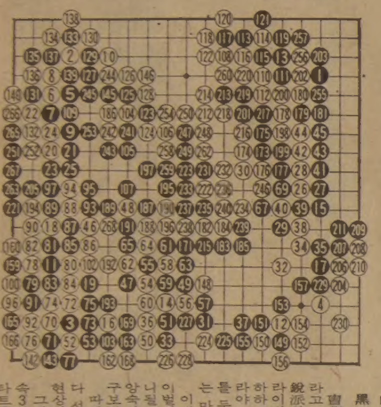
◇…교수

◇…교장

入試의식한 획일적內容 改善해야
國定制지양하고 檢認定制도입 바람직
漢字및 外來語 主體性있는 선택을

제1371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局 總譜 268手完 黑6집半勝 (각5시간 덤5집반)



白(6段) 徐 能 旭〈1敗〉
黑(4段) 姜 勳〈1勝〉

曺薰鉉·徐奉洙를 정상의 라이벌이라고 한다면 徐能旭·姜勳은 青年氣銳派의 라이벌이라고 할만하다. 원래 라이벌의 조건은 첫째 실력이 막상막하하고 둘째 연령적으로 비슷한 또래라야 한다. 그리고 더욱 피차간 상대를 두려워하면서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잊지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것을「畏敬」이라 하거니와 라이벌이란 자신을 키우는데 없어서 아니될 스승이기도 하다. 세상이 아무리 앙숙처럼 보더라도 본인들은 실상 누구보다 아끼고 싶은것도 이때문이다. 따라서 승부는 병가지상사라기 보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한때의 현상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名人戰에서의 연속3패를 설욕한 姜4단은 앞으로의 스타트를 한셈, 앞으로의 활약이 크게 기대된다.

姜4段 緖戰장식

이바둑은 한말로해서 스릴만점. 역시 팔팔한 젊은이다운 내용의 것이었다.

맨처음의 승부처인 하변에서 위쪽으로 탈출하지않은 白50이라하여 64까지 위험을 자초했으나 黑65의 패싸움으로인해 黑69까지 일대교환을 한뒤 白은 70이하의 맹공을 퍼붓고 108까지의 전투에 성공. 다시 108까지 졸지에 白의우세가 두드러졌다. 도중 黑은87로 직접 90자리에 끊는것도 一策이었으나 그보다도 좌상귀쪽에서 白이 132로 136에 잡지않은 단한수의 실책으로 黑135를 당하여 白은 억울하게 역전당했다. 94따냄. 58패. 68…55이음. 98…88먹임. 99…66…. 47、161、167…133패. 11、101…88이음. 141、44、158、164、170…2패. 172…133이음. 261…40이음. 264…165이음. 白…310黑3. 30.

【一凡】

讀者페이지 民衆의소리

◇나도 가격표시했소
【김민자·서울麻浦區桃花2洞428번지 10통5반】

◇"두얼굴의 사나이"
【최 경·경기安養市石水洞관악APT 18동101호】

나의이력서 尹致暎 ㉜

〈題字·尹致暎〉

李承晩박사와의 인연은 어떻게보면 숙명적인지도 모른다. 하와이에서 李박사를도와 일했던 나는 워싱턴시절 다시 再會하게됐다. 콜럼비아대학시절『워싱턴으로와서 歐美위원부활동을 하라』는李박사의 호출을 받았을 때는 공부에 체계가 막 잡혀갈 때쯤이라 우선공부에 전념하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결국『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구나』생각하고 그의 뜻에 따랐다. 조지·워싱턴大와 아메리칸大에 다니면서 歐美委員部활동에 참여했다.

활동의 일환으로 나는 美국무성도 찾아가고 上·下兩院의 외무위원들도 만나고 워싱턴에있는 50여개국 외국공관과도 접촉을 벌였다. 또 수많은 국제공공조직체를 상대로「外交工作」도 폈다.

美국무성에는 한국문제가 있을때마다 쫓아다니며 日帝의 만행을 알리고 우리의 입장을 호소했다. 美議會에서 식민지인 한국문제의 논의는 관심밖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의회에서 日本문제나中國문제를 거론할 때를 노려 쫓아다니며 한국문제를 꺼내고 지원을 호소했다.

그들이 우리의 호소를 외면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일 때는 울분의 피눈물이 솟아 올랐다. 우스운 말 같지만 외교에는 우수한 인재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돈이 있어야된다는것을 새삼스레 실감한 것도 그때였다.

李박사는 없는 돈을 끌어내 一流호텔을 빌어서 기자회견을 하고 日帝의 포악한 軍國통치, 식민정책을 규탄하고는 했다. 그것은 虛勢가 아니라 절박한 示威이자 絶叫였다. 李박사는 개인생활은 最低로하면서도 외교를 위한 公的행사는 최고로, 의연하게 하자는 의도였다. 李박사는 빌어든 호텔방과 창밖엔 꼭 커다란 태극기를 걸어놓곤했다.

나는 李박사와 함께 언론과 각대학총장, 종교계지도자들과도 접촉, 한국의 입장에 대한 선전을 하면서 여론조성을 꾀했다.

主權없는 민족이라는 이유때문에 미국정부와 의회와의 접촉에서는 수없이 비애를 맛보았지만 언론, 학계, 종교계등 민간쪽에서는 李박사의 力量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버텨갈 수 있었다.

우리는 또 도울 수 있는 한 上海임시정부를 도우면서 대외적으로 성과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내경우는 上海臨政의 趙素昂씨와 긴밀한 연락을 많이 했다.

우리는 미국정부를상대로 臨政의 합법성을 인정해주도록 끈덕진 노력을 기울였으나 미국정부측은 국제법등을 이유로 합법성 인정을 번번이 거부했다. 그러자 우리는 직접 일선에서 미국민및 세계앞에 日帝의 만행을 고발하고 한국민의 고통을 알리는 선전공작을 전개했던 것이다.

李박사는 스위스의 國際聯盟에도 뛰어다니며 한국문제를 호소했다. 일본대표 마쓰오까(松岡)가 국제연맹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나갈때도 李박사는 列强대표들 앞에서 대한독립을 줄기차게 역설했다.

그런데 그 국제연맹에서 일본의 마쓰오까를 따라와 日帝를 옹호한 한국인에 朴錫胤이 있었다. 朴은 같은 東京유학생으로 오랫동안 야구선수를 같이해온 知己가 아니었던가. 그럴수가…난 그의배신을 전해듣고 분노가 끓어올라 잠을이루질 못했다.

獨立公債 발행

美要路서後援…처음엔 同胞들 큰呼應
歐美委、臨政內部의 갈등으로 수난도

◇歐美委員部는 李承晩박사의 아이디어로 활동자금마련을위해 獨立公債를발행했다。사진은 50달러짜리公債。

歐美委員部는 資金難 타개책으로 臨政명의로 교포들에게 獨立公債를 발행, 교포들의 큰호응을 얻기도했다. 당시 독립公債는 李박사의 아이디어로 미국정부가 1차大戰때 戰費보충을 위해 발행했던 國債를 모방해 만들었는데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았다.

당시 독립公債발행에는 변호사 스태거박사, 美연합신문사장 제롬·데이비스씨, 하버드의 월슨박사, 프린스턴의 웨스트박사를 비롯, 美上·下의원들, 兩院의 채플린목사2명, 상공회의소회원등 각계 다수인사들이 후원을 해주었다.

독립공채발행은 처음 3, 4개월간 성적이 좋았으나 미국내 某韓人단체에서 애국공채를 거둔다고 발표를 하면서 워싱턴에서 거두는 공채는「詐欺」라고 하는 바람에 큰 타격을 받았다.

독립공채는 대한민국정부가 漢城(서울)에 들어가면 (獨立)만 1년후에 갚아주기로 했었다.

建國후 정부는 閣議에서 公債상환을 결정하고 駐美대사관에 이를 訓令했는데 때마침 귀국한 한 하와이교포는 이 公債를 韓銀에 제시, 돈을 바꿔가기도 했다.

歐美위원부는 臨政內의 갈등과 反李박사分子의책동으로1925년 臨政國務院에서 廢止令이 나오는등 受難을 겪기도 했으나 李박사는「무식한소치」라며 이에 아랑곳 없이 활동을 계속했다.

모눈종이 위의 生 〈186〉

趙善作 作 / 禹慶熙 畫

灰色 노우트⑱

『선생님은 마치 그쪽을 더…부인께서 돌아오지 않는쪽을 더 기대하시는것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맞았오. 미스 안에 비하면 그여자는 이미 할머니니까』

J씨는 탁 소리가 나도록 찻잔을 테이블위에 내려놓았다.

『어머?』

내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괜스레 소파주변을 서성거렸다. 나는 두려운 눈으로 그를 좇았다.

『그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남자라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거 보니까? 지난여름 난 그여자에게 다녀왔소. 헤어지는 길에 우리는 국적인,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엉터리 없는 표현도 딱 어울리는군. 아뭏든 국적인 합의를 본거요. 더자세히 듣고싶소?』

내가 앉은 소파의 팔걸이에 두팔을 짚고, J씨는 내 얼굴 가까이 그의 얼굴을 가져오며 무서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성급히 부정했다.

『아니예요. 전혀아녜요』

타인의 불행을 향해 예민한 더듬이처럼 더듬었던 호기심을 나는 재빨리 거두어 들였다.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J씨가 다시 말했다.

『그렇지요. 구질구질한 얘기니까. 언젠가는 모두 얘기하게 되겠지』

그는 내 소파의 의자 팔걸이에 걸터 앉았다. 그러고는 오른 팔을 돌려 내 반대편 어깨를 잡았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나는 그를 뿌리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불행의 무게가 내게는 너무도 무거웠고, 잠시 나는 가만히 앉아있었다.

『당신을 놓치지 않겠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신이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요』

J씨의 팔은 내 어깨를 더욱 아프게 조여왔다. 그의 입술이 더운 입김을 뿜으며 내 귀바퀴 근처로 달려들었고, 그는 곧 몸 전체로 내게 쏟아져왔다. 비로소 나는 그에게 항거하기 시작했다. 누에처럼 머리를 흔들며 나는 팔을 당겨 그와 나 사이에 끼였다. 그러나 그를 밀쳐낼만한 힘이 내게는 없었다. 나는 그를 힘으로 밀쳐내는 대신 말했다.

『잠깐만요. 내일이면 후회하실 거예요. 저에 관해서 더 깊이는 모르시잖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알고싶지 않아요.』

J씨는 스스로 내게서 조금 흘러내렸다. 소파와 탁자사이의 비좁은 공간에 끼인 그는 두 팔로 내 허리를 감고 내 무릎 위에 얼굴을 묻었다.

그런 자세는 한참동안 유지되었다. 위협부담을 각오했던 J씨의 아파트방문이 이런식의 엉뚱한 구애(求愛)로 낙착되리라고는 나는 미처생각하지 못했었다. 그의 말대로, 나름대로는 이것저것 나에 관해서 알아보았던 모양이고, 또 그의 나에 관한 관심은 지난해 봄 광화문의 어떤 음식점 앞에서 처음 만났을때 비롯되었는지도 모를일이었다. 한때의 일행들과 처음 목례를 나눌때 보여 주었던 J씨의 반짝이던 눈을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J씨의 그런 사정을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고려할 형편이 아닌것이다. 나는 다만 그가 정통의 일을 알고 있는가 만이 문제이며, 이후라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만이 두려울 뿐이었다. 그런데 그의 돌연한 호소와 맞선 것이다.

J씨가 내 무릎에서 얼굴을 들었다.

『내일 미스 안의 부친을 만나겠소. 구식이지만 양탄자위에서 너부죽이 큰절을 하고 나오겠어요. 그래도 내가 내일이면 후회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張吉山 (1637)

黃晳暎 作 / 崔然石 畫

第四部 第一章 彌勒逆謀 (97)

여환은 잠시 말이 없었다. 계화가 눈치를 살피며 말하였다.

『스님 말은 들을 거예요. 암자로 데려다가 보살로 살림이나 맡기시면 좋겠어요. 우리두 안심이 되구요. 또 거기서도 얼마든지 제 공을 들일 수가 있다구요』

『자기 뜻이 저러니까…그냥 두어 보십시다』

여환은 그렇게 대충 말해 두었다.

『자, 그러면 내일 일찍 떠나기루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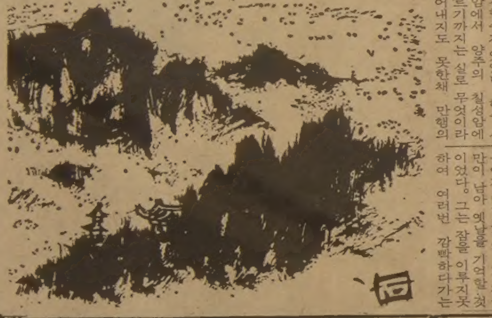
여환은 자기방으로 돌아와 누웠으나 잠이 오질않았다. 수태사 하안거부터 이번 오진암의 회합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얼마나 변하였는가를 실감할수가 있었다. 해주 사자암에서 양주의 칠성암에 이르기까지는 실로 무엇이라 짚어내지도 못한채 만행의 연속이었으며, 다만 온 세상의 사문과 등을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보살행을 실천하여 가겠다는 막연한 생각뿐이었다. 중으로서 세간에 몸을던지기는 하였으되 아직은 그 의미를 스스로 깨닫지못하고 있었던것이다. 뜻을 세운 뒤로부터 연계는 착실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사실 궁궐을 장악한다는 일은 바위를 삼키려는 짓만 같이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렇다, 까짓 그렇게 커다란 바위라 할지라도 귀퉁이부터 조금씩 쪼아나가다 보면 가루가 되어 허공중에 뿌려버릴 수도 있으리라. 무엇 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야 하고 잡은 마음들은 놓치지말고 모아야만 하였다.

『의술을 익혀야 한다…』

그는 돌아 누우면서 중얼거렸다. 시절이 흉황이요, 백성들은 지치고 병들어 자빠지고 코깨진 격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붙일 데가 없었다. 병든자를 치료하고 상한 마음을 달래주어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 서로 도와야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돕는 가운데 힘이 생겨 남을 가깝고 쉬운 곳부터 시작하여 스스로 터득하게 할 일이었다. 작은 일부터 실현할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려면 작료의 제도를 고친다든가, 관을 믿고 자세가 심한자의 행패를 여럿이서 바꾸어 준다든가 해야 될 것이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초생달이 만월로 이어가듯 일은 점점 드넓게 뚜렷하게 자라날 것이 아닌가. 한번 마련되는 바탕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세가 불리하면 그 바탕을 꽉 움켜쥐고 유지시켜 나가는 일도 귀중하다. 여환은 이번의 월정사 방문이 그의 마지막 발길이라는것을 잘알았다. 풍열 스님과 옥여가 떠나고나면 사당패들 만이 남아 옛날을 기억할 것이었다. 그는 잠을 이루지못하여 여러번 깜빡하다가는 흠칫 깨어나곤 하면서 예불때까지 뒤척였다. 범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고, 그는 일어나 앉아 잠깐의 선정에 드는데서 나아가 방문을 열고 법당으로 향하였다. 종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법당 안에는 옥여와 다른 수좌 두엇이 단정히 앉아서 예불을 올리고 있었고, 여환도 그들틈에 끼였다. 여환의 염불소리는 그들 가운데 기중 낭랑하여 섞이지 않고 위로 뛰어올랐다. 옥여가 때리기 시작한 목어 소리가 맑게 퍼져나갔다. 예불이 끝나고나서 다른 승려들은 절 주위를 돌며 염불을 계속하였고, 여환과 옥여는 나란히 걸어 옥여의 방에 들었다.

『어이구 졸려…공부고 뭐고 다 집어 치우고 잠 좀 자야겠어』

옥여가 하품과 기지개를 한꺼번에 터뜨리며 중얼거렸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교포특별우대… 쿠폰과 함께 20%할인
…남자용각종의류 및 악세사리 미스터오 FOR MEN
TIE CITY Square One. 275-2187 (Hwy 10, Burnhamthorpe)
Mister O Cumberland Centre 2 Bloor St. W. 964-2606 (Yonge, Bloor St.)
Mister O Commerce Court Centre 869-0589 (Bay, Yonge, King St)

安康寧藥材行
안강용 한약 건재상
On Hong Ling Herbs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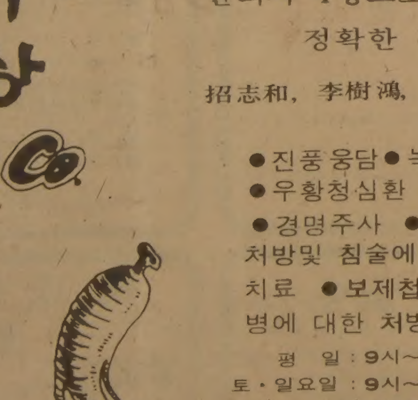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평소에 뜻한바 있어 금번 중국에서 30여년 한약에 대해 많은 연구와 경험을 쌓으신 중국인 의사 네분을 모시고 교민여러분 가정의 건강관리에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코자 중국인 의사와 같이 아래 장소에서 한약도산매를 신장개업 하였사오니 일차 왕림하시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호 권 PETER CHAN 배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로 봉사
招志和, 李樹鴻, 周楚, 黃國威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 병에 대한 처방약

평 일 : 9시~9시
토·일요일 : 9시~9시
CHINA타운 내



차이나타운 내

465 DUNDAS ST. W., TORONTO
(DUNDAS×SPADINA)

TEL: (416) 363-3883 363-2088

새마을金庫이사장 또 巨額횡령

장부造作 1억2천만원 빼내 潛跡

서울 里門洞

住民이 맡긴 돈 절반…鑛山등에 投資

새마을금고이사장이 또 금고 총자산의 절반이상을 횡령한뒤 달아났다.

서울淸凉里경찰서는 27일 서울東大門區里門3洞새마을금고 이사장 裵鳳寅씨(54·서울東大門區里門3洞256의2·28)를 업무상횡령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裵씨는 지난76년 5월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취임, 79년7월31일 금고지출금 27만5천원을 5백27만5천원으로, 금고 보통예금예탁금 지출금 7백85만6천여원을 1천2백85만여원으로 허위 거재, 1천여만원을 횡령하는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1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里門3洞새마을금고 회계및 장부정리책임자李모씨(27·여·서울東大門區淸凉里洞)가 裵씨의 불법인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장부를 기재한것으로보고 관련여부를 추궁중이다.

裵씨는 불법인출한 공금으로 광산업과 부동산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한것으로 알려졌다.

里門3洞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억3천6백여만원으로 회원은 영세상인등 예금자 2천여명과 출자고정회원 6천7백여명등 모두 8천7백여명에 이른다.

裵씨는 이같은 부정대출사실이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새마을금고 서울시지부와 東大門구청의 정기감사에 의해 밝혀지자 행방을 감췄다.

◇吉仁瀅씨

吉仁瀅씨 歸國자수

4억脫稅 美피신한 코스모스前代表

4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후 거액의 외화를 챙겨 미국으로 도피했던 서울明洞코스모스백화점 전대표 吉仁瀅씨(62)가 27일 서울시경에 자수, 국내재산도피·외국환관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됐다.

吉씨는 경찰에서「언어장벽과 풍습이 달라 늙은나이로는 미국생활에 적응할수없어 모국에돌아와 벌을받고난후 자유롭게 살고싶어 지난21일밤 대한항공편으로 귀국했다」고 자수동기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吉씨는 지난해9월부터 지난3월까지 코스모스백화점명의의 은행도약속어음 10억원을 발행, 그어음을 빌려주고 월3~4푼의 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사채놀이를 해 얻은 이자소득중 종합소득세 3억4천4백만원, 방위세 6천9백만원등 모두 4억1천3백여만원을 포탈했다는것.

吉씨는 탈세외에도 경찰이 이같은 사실을 수사하자 이미 미국에 이민 가있는 가족들을 뒤따라 지난 3월4일 미화8만3천달러를 갖고 미국으로 달아나는등 모두 미화 12만달러를 해외에 도피시킨혐의를 함께 받고있다.

서울에도眞性뇌염

奉天·敦岩洞2명·전국 5명

서울에도 진성 일본뇌염환자가 발생했다.

보사부는 27일 서울冠岳區奉天洞 유영희양(13·가명)과 城北區敦岩洞 유상진군(20·가명)에 대한 2차에 걸친 혈청검사결과 모두 진성일본뇌염환자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경기 華城郡松山面芝花里 정모군(14)과 전남 海南郡門內面古葉里 李상균씨(26·가명)도 각각 진성뇌염환자로 판명돼 27일현재 전국의 진성뇌염환자는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全州=聯】의사뇌염증세로 중태에 빠진 어린이 환자를 가족들이 무리하게 퇴원시켜 집으로 옮기는바람에 곧숨진 사고가 또 일어났다.

전북 任實郡 任實邑二道里 李현우씨(57)의 3남 태봉군(11)은 지난24일 고열과 심한 구토증세로 全州예수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계속 중태에 빠진채 의식을 회복치못하자 가족들이 치료비를 걱정,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6일상오11시께 퇴원시켜 버렸다는것.

태봉군은 퇴원한지 4시간만인 이날 하오3시께 숨졌다.

한편 全南大의대부속병원에서도 뇌염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아온 어린이 환자2명이 치료비부담때문에 지난18일 병원에서 퇴원, 1~2일만에 모두 숨졌었다.

再入國한 섹스敎수사

警察、美國人 강사등 6명연행

美國人이 布敎責「性經」읽고 춤추며 狂亂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해괴한 유사종교가 한국에 6년만에 재상륙, 비밀포교활동을 벌이고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치안본부 특수수사대는「섹스교」로 통하는 이 사이비종교의 한국포교 책임자 존순씨(30·A대학강사)부부등 외국인 4명을 조사하는 한편 한국인교도 李모씨(30·L건설 해외부)등 2명을 연행, 혼음등 비윤리적 행위의 가담여부를 수사하고있다.

존순씨는 지난 79년 관광비자로 입국한뒤 서울江南區盤浦洞 한신 5차아파트 117동603호에서「섹스를 통한 인간해방」이란 엉뚱한 교리를 내걸고 포교활동을벌여온것으로 알려졌다. 이 종교단체는 미국인 데이비드·버브씨(62)가 지난68년 창설, 미국등지에 8천여신도가 있는데 지난74년히피출신의 제프리·팅커씨부부가 한국에 처음으로 잠입, 서울汝矣島아파트등지에서 비윤리적행위를벌이다 1년만에 미국인7명이 추방당했었다.

국제종교문제연구소 卓明煥소장은 최근 자신이 이종교의 정체를 추적한 끝에 신앙의 탈을 쓴「육체의향연」이라고 폭로했다. 소위 섹스교 교도들은 매주토요일 하오6시부터 자정까지 해괴한 예배의식을 진행하고 있다는것.

예배의식은 재즈기타연주속에 남녀신도들이 춤을추며 지도선교사와 키스를 나누는 등 분위기를 고조시킨뒤 성적자극을 유발하고 혼음을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하나님도 마리아와 정을 통해 예수를낳았다』고주장하면서 도색잡지인 플레이보이、팬트하우스를 능가하는 내용의교주의 편지를 바이블(성경)로 사용하고 있다.

本紙「新風土記」에 감사패

趙전북지사 張회장방문전달

◇趙전북지사(左)가 본사 張회장을방문, 감사패를 전달하고있다.

趙澈權전북지사는 27일 상오11시 본사張康在회장을 예방, 한국일보社가 5면에연재중인「新風土記」를 통해 전라북도의 전통문화와 향토풍물의 진수를 널리 알려준 것에 감사하는 감사패를전달했다.

"變質 소아마비 백신 벨기에 全量 재공급"

내달 22일부터 접종再開

保社部당국자 밝혀

보사부는 27일 수입과정에서 보관잘못으로변질된 금년 하반기와 내년도분 소아마비 예방백신 전량을 벨기에의 메이커측에서 전량 재공급받기로 최종합의 됐다고 밝히고 오는9월22일부터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전국적으로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이에따라 이날 국립보건원 비축분 38만4천명분을 각 시·도에 우선 배정하고 재공급키로된 백신원료가 도착되는대로 제품을 만들어 계속 공급키로했다.

9월22일부터 3개월간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되는 이번 소아마비접종대상은 80년 11월1일부터 81년 6월30일사이에 출생한 어린이들이다.

어린이들 危險천만한 놀이

흰쥐「愛玩」

길거리·學校앞서 마구팔아

實驗用71% 유행성出血熱에 감염

無許사육·販賣대책을

高大 李鎬汪박사팀抗體실험衝擊的보고서

◇유행성출혈열 바이러스에 감염된 실험용 사육 흰쥐와 같은 종류인 흰쥐들이 아무런 검역시설도없이 사육돼 학교앞이나 길거리에서 마구팔리고있다.

◇李鎬汪박사

학교앞이나 길거리에서 어린이 애완용으로 팔고있는 흰쥐중 상당수가 연구소실험이 끝난뒤 흘러나온 것이며 이 연구소실험용쥐중 또 대다수가 무서운 유행성출혈열 바이러스에 감염돼있다는 충격적인 의학보고서가 나왔다. 高麗大의대바이러스병연구소(소장 李鎬汪박사)는 27일 이같은 사실을 국내최초로 밝혀냈다고 발표하고 연구소에서 사육하고 있는 흰쥐가 방출되면 곤란하며 또 시중에서 아무런 방역시설도없이 마구사육, 내다팔고있는 흰쥐들도 일단 감염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흰쥐의 판매와 무허가 사육금지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국내에서 위생시설이 가장 잘된 6개연구기관에서 사육하고 있는 실험용 흰쥐 1백96마리와 사육사 48명을 상대로 유행성 출혈열 항체실험을한결과 사육흰쥐의 71·4%에달하는 1백40마리가 유행성출혈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있는것으로 나타났고 사육사들중 15명이 유행성출혈열을앓았거나 또는 현재 바이러스를보균하고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소는 지난79년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와 감염경로를 세계최초로 밝혀낸 권위있는 기관인데、들쥐나 집쥐뿐만아니라 실험용 흰쥐도 유행성출혈열을 옮길수있고 또 가장무서운 전염원이 되고있다는 사실을 밝혀낸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소장 李박사는 실험용흰쥐가 이처럼 유행성출혈열 바이러스에 대량으로 감염되어있는 원인을 ▲실험용흰쥐를 외국에서 들여올때 병균에 감염된 쥐를 들여와 퍼진경우 ▲국내에서 실험용흰쥐를 옮기는 과정에 퍼지는 경우 등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구목적을 전혀 갖고 있지않은 민간인무허가사육업자들이 영성한 사육장에서 흰쥐를 대량으로 번식시켜 항체검사등 검역절차도 전혀 거치지않은채 시내 국민학교 또는 중고교학생들의 실험용이나 노리개감으로 마구 팔고있어 유행성 출혈열을 퍼뜨릴 위험이 있고 정서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치고있다.

서울의경우 淸溪川6街일대를 비롯한 시중곳곳에서 애완용 흰쥐、생쥐들을 소규모로 팔아왔으며 실험용흰쥐는 국립보건연구원이나 각대학연구기관에서 자체소비용으로 사육하거나 서울江東區岩寺洞、경기議政府安養등지에 산재한 민간사육업자들이 제약회사납품용으로 대량사육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앞이나 길거리에 흰쥐를 벌려놓고 몸길이 10㎝정도의 생쥐는 1마리에 3~5백원, 흰쥐는 1천원정도에 팔고있는데 학생들은 이쥐를 학습용이 아니라 순전히 가학성놀이용으로 사용하고있다.

쥐꼬리에 불을 붙여 쥐가 펄펄매고 마당쟁이도는 모습을 보고즐기거나 또는 불을 붙인상태에서 남의쥐와 경주를 시키기도 한다.

서울西大門區忠正路 애완금수원 주인金鍾謙씨(27)는『흰쥐를사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고생인데 놀이감으로 삼기위해 사간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大의대 동물실험실의 金洙南씨에 따르면 대학연구기관들에서는 각종 세균감염을 막기위해 철저히격리하고 있지만 민간사육장에서는 격리시설이 미비해서실험용 흰쥐가 집쥐와 접촉하는 경우가 많을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의 閔昌泓박사(56·미생물부장)도『연구기관에서조차 완전무균상태에서 쥐를 기르지못하고있는 실정인데 민간업자들이 기른 쥐는 집쥐와같은정도의 감염위험을 갖고있다고 보아야할것』이라고 말하고『흰쥐가 시중에 아무규제없이 나도는 사태는 방역이나 교육적 측면에서 근절되어야할 것이며「실험용동물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한다』고 말했다.

【姜秉泰기자】

유행성출혈열 법정전염병으로 두통、패혈증、고열끝에 증세가심하면 목숨을 잃는다.

급속한 전염성으로 우리나라에는 6·25직후인 51년중부전선에서 中共軍과 교전중이던 미군 장병들에게 집단으로 발병한이래 79년까지 1만7백11명이 발병한것으로 공식집계되었다.

현재 만주 몽고 일본 소련및 동구권과 남미등에 많은 발병률을 보이면서 전세계로 번져 나가고있다.

一家族4명 집단被殺

馬山 셋방서 어린男妹까지 亂刺

金品그대로…怨恨·치정 두갈래 捜査

◇숨진李東熙씨

◇부인朴鍾淑씨

【馬山=聯】27일 상오 시께 경남馬山市合城洞205의12 朴成奎씨(47)집 아래층에 세들어사는 李東熙씨(31·침구상주인)의 안방에서 李씨와 부인 朴鍾淑여인(25) 장남 正勳(3) 장녀 枝燕양(2)등 일가족 4명이 칼에 마구찔려 숨져있는것을 李씨의 친구 상수금사원 洪泰宗씨(26)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洪씨에 따르면 이날 아침 수금할돈을 주기위해 李씨집 안방과 붙어있는 가게로 일찍 나왔으나 셔터가 내려져 있는데다 몇차례 불러도 인기척이 없어 담을 넘어 방안에 들어가보니 李씨등 일가족 4명이 전신을 칼로 난자당한채 숨져있었으며 방바닥과 이부자리에 피가 낭자했다는것.

현장에는 방안쪽에 李씨가 삼각팬티만 걸친채 후두부를 8㎝깊이로 찔려 숨져 있었고、방가운데는 正勳·枝燕남매가 목과 가슴이 칼에 찔리고 목뼈가 모두 부러진채 그리고 방문앞에는 부인 朴씨가 허리가 벗겨지고 오른쪽 가슴과 머리를 칼로 찔려 반듯이 누워 숨져있었다.

방안에는 TV냉장고등금품은 그대로 있었으나 높이 1m의 장롱서랍 6개가 모두 뒤져져 그속에 있던 옷가지및 이불로 시체가 덮여 있었으며 전기불은 켜진채 그대로 있었다.

경찰은 이날 合城동파출소에 수사본부를 설치、▲숨진 李씨가 평소 의처증이 심해 부인을 자주 구타해 왔으며 ▲금전관계로 친구들과 다투는일이 많았다는 집주인 朴씨를 비롯한 이웃 주민들의 진술과▲방안에 있던 금품이 그대로 있고▲범행수법이 잔인해 어린이2명까지 무참히 살해한것으로보아 원한 또는 치정에얽힌 살인으로 추정、李씨및 부인 朴씨의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사건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됐던 길이30㎝가량의 식칼과 범인이피운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1개를발견, 지문등채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는한편 숨진 사람들이반항한흔적이 별로 없는점으로 미뤄 범행시간을 이들가족이 잠이 잘든 새벽3~4시께로 추정하고 범인이 2명이상일 가능성도있다고 보고 수사를 펴고있다.

그런데 숨진 李씨는 지난78년5월 부인朴씨와결혼、釜山東區에서 살아오다 지난해 7월 이곳으로 이사온후 침구상을 경영、이불등을 팔아왔는데 최근 인근지역으로 이사하기위해 방을 물색중이었다.

休學 5百71명 除籍 9百15명

서울大 작년에

지난해 서울大 학생(대학원생포함) 가운데 휴학한학생이 5백71명으로 전체의 3%、전체의 4·68%인 9백15명이 제적되었음이 27일 밝혀졌다.

27일 서울大 통계연보에 따르면 80학년도 등록학생 1만9천5백11명중 5백71명이 휴학、79년의 3백15명가78년의 3백17명에 비해 2배가까이 늘어났다.

또 제적생도 9백15명으로 79년의 2백36명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났다.

放送通信大學 신입생

3만명으로 축소조정

서울大

서울大 부설 방송통신대학은 5만명을 모집하려던 내년도 신입생입학정원을 3만명으로 축소조정키로 했다.

27일 방송통신대학에 따르면 현행모집정원 3만명에서 내년도부터 2만명을 더늘릴 계획이었으나 교수및 수용시설의미비로 계획을 취소하기로했으나 학과는 현행5개학과에서 법학과·경제학과·영문학과를 신설, 8개학과로 늘리기로 했다.

全國중·고교장人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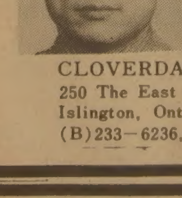
2백23명 전보발행

문교부는 9월1일자로 전국중·고교 교장급인사를 단행、2백23명을 전보발령했다.

이 가운데 시·군교육장및 시·도교위 산하 부장급인사는 다음과 같다.

◇仁川=▲중등교육과장 安文玉 ◇京畿=▲실업교육과장 辛漢教 ◇江原=▲실업교육과장 金淳銘 ▲사임당(師任堂)교육과장 申鉉哲 ▲사회체육과장 崔承麟 ▲江陵시교육장 李東雨 ▲東海시교육장 洪昌植 ▲橫城군교육장 柳興秀 ▲중등교육과장 盧在春 ◇忠北=▲報恩군 교육장 洪命憙 ◇忠南=▲洪城군교육장 陳文燮 ▲扶餘군교육장 李字九 ◇全南=▲교육연구원장 朴貞柱 ▲寶城군교육장 金昌燮 ▲학생과학과장 李載完 ▲康津군교육장 安錫斗 ▲順天시교육장 宋丞鎭 ▲完島군교육장 朴希柱 ◇慶南=▲昌原시교육장 李永珠 ▲固城군교육장 李覺 ▲陝川군교육장 鄭泰容 ◇濟州=▲교육연구원장 高泰湜 ▲학무국장 申瑢俊 ▲중등교육과장 姜의禾 ▲北濟州군교육장 康宗淑 ▲학생과학관장 宋啓明 ▲초등교육과장 金方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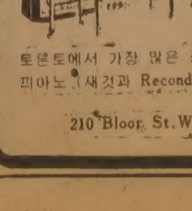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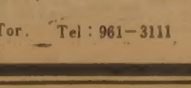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CLOVERDALE MALL
250 The East Mall, Suit 157
Islington, Ont. M9B 3Y8
(B)233－6236, (R)745－8236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도의 중국음식, 뱅킷, 카드에 닦아서 원하는 대로 피익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Spadina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NIPPON VIDEO CENTRE
1993 Danforth Ave.
Toronto, Ont.
☎ : 698－0633
TOSH HAMAGUCHI
(하마구찌)
일본비데오센터
BETA. VHS두종류
※일본. 한국 테이프 준비됐읍니다
두종류의 테이프가 있읍니다.
●비데오테이프레코더의 판매
●비데오테이프대출(빌려줌)
월, 수, 토 : 오전10시~오후6시
목, 금 오전10~8시 회원모집(특별할인)
화요일은 문 닫습니다. 우드바인서쪽 1 block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 · 악기수리 · 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된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 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 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선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 (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영업시간
●월~토 9 : 30AM~6 : 00PM
●월~토 11AM－7PM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요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魔의 8회 善隣을 울렸다

慶北、大逆轉 연출 鳳凰大旗 쟁취

敵失 3·연속 3安打로 4點빼내

6—4

鳳凰大旗 고교野球

영광의 초록 鳳凰大旗는 慶北高에 돌아갔다. 慶北高는 26일밤 3만관중의 열광속에 서울운동장에서 야간경기로 펼쳐진 제11회 鳳凰大旗전국 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柳仲逸을 중심으로한 철벽수비와 좌완 에이스 成埈을 구원, 등판한 1년생우완 언더드로 文炳權의 8회초 역전결승타로 또다시 강적 善隣商高에 6—4로 역전승, 71·75년에이어 鳳凰대회사상 처음 3번째우승을 차지했다. 청룡기 결승서도 慶北高에6—5로 분패, 설욕을 다짐했던 善隣商高는 7회까지 4—2의 우세를 지켰으나 攻·守의 핵인 朴魯俊의 부상, 퇴장이 수비진의 동요를 일으켜 8회초 잇단 3실책으로 자멸했다. ★일부地方중복

朴魯俊부상、1回들려나가 善隣무너져

慶北高-善隣商

善隣商高는 금년청룡기、화랑기、鳳凰大旗서 모두 준우승、만년2위의 오명을 씻지 못했다. 결승2루타를 날린 文炳權(경북)은 최우수상과 수훈상을、慶北에이스 成埈은 최우수 투수상을、慶北유격수 柳仲逸은 미기상을 받았다.

예상대로 慶北은 좌완 成埈、善隣은 우완 金健友를 선발로 맞섰다。그러나 金健友는 1회초 자신만만하게 직구를 던지다 혼이 났다。첫 공격에 나선 慶北의 선봉 柳仲逸은 가운데로 파고드는 金의 제2구 빠른 직구를 강타, 통쾌한 좌중월 2루타를 날렸다。

2번 權宅幸는 보내기번트를 시도, 서두르던 善隣1루수 趙永一의 낙구로 無死1、2루의 찬스를 마련했다。그러나 慶北은 이 결정적인 선제득점기회를 후속범타로 놓쳐 힘든게임을 벌였다。

善隣으로서도 순조롭지못한 스타트였다。金健友는 1회초 수비중 慶北타구에 맞았고、朴魯俊은 1회말공격중 자신의 파울볼에 다리를 맞았다。

善隣은 1회말 선두 金雄大가 1루수 라이너로 잡힌후 2번金國鎭、3번 朴魯俊의 연속안타、4번 金健友의 경원포볼、2死후 6번 李敞宰의 2타점적시타와 慶北 좌익수의 홈악송구로 3득점。善隣은 선제득점을 얻은대신 공수의 핵인 2루주자 朴魯俊이 홈에 슬라이딩 안착후 발목 골절로 들려나가 큰 부담을 안게되었다。

3회까지 안타수 4—1의 열세에있던 慶北은 4회초 포볼과 스틸로 만든 2死2루의 찬스서 7번 趙亨燮이 날린타구를 朴魯俊대신 수비에나선 善隣우익수 朴正圭가 놓치는바람에 2루타가되어 1점을 만회했다。

善隣은 6회초 선발 金健友의 난조로 안타없이 慶北에 1점을 빼앗겼으나 우완李바오로의 역투로 고비를 넘기고 6회말 李바오로의 2루타와 趙永一의 적시타로득점、2점차의 리드를 고수했다。

운명의 8회초. 선두하던 善隣의 李바오로가 慶北선두 3번 洪淳浩에게 포볼을 허용、이어 2루수 金明培의 연속 2실책과 포수 趙弘紀의 실책으로 慶北에 4—4의 동점을 허용했다。

慶北은 이찬스를 놓치지않고 6번 金允榮의 우전안타、7번 文炳權、8번 盧國成의 연속3안타로 6—4로 게임을 역전시켰다。7회에 구원등판한 文炳權은 절묘한 언더드로로 善隣타선을 막으며 8회초 역전결승 2루타를날렸다。

善隣포수 趙弘紀의 약점을 간파한 慶北은 8회초의 3도루를비롯、6개의 도루로 善隣내야수비를 뒤흔들었다。

▲결승전

	1	2	3	4	5	6	7	8	9	계
경북고	0	0	0	1	0	1	0	4	0	6
선린상	3	0	0	0	0	1	0	0	0	4

◇결승전개인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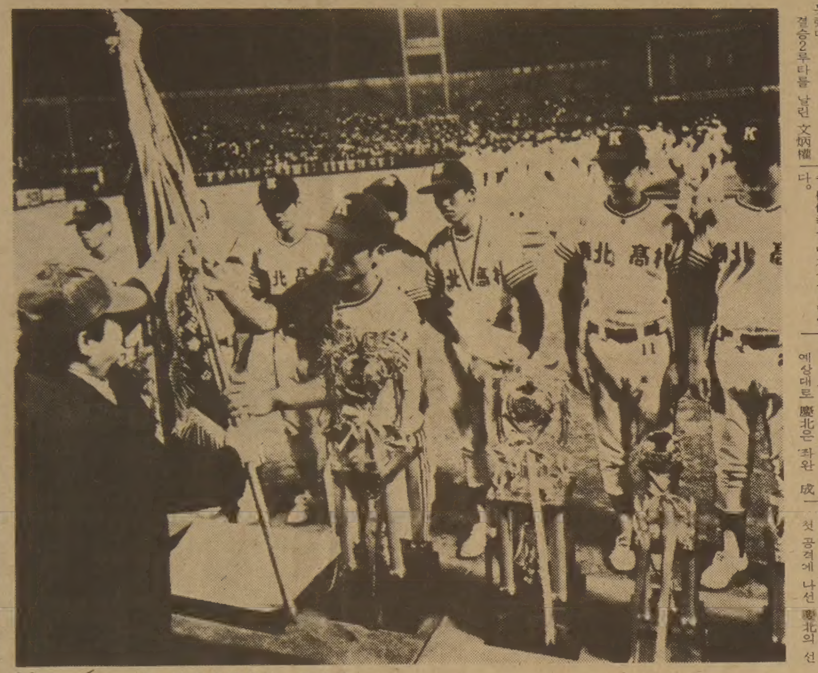
경북고		타수	득점	안타	타점
柳仲逸	(遊)	5	0	1	0
權宅幸	(一)	4	0	0	0
洪淳浩	(三)	4	1	1	0
崔武永	(中)	3	1	0	0
曺光德	(左)	4	2	0	0
申成哲	(捕)	1	0	0	0
金允榮	(捕)	3	1	1	0
趙亨燮	(右)	2	0	1	1
文炳權	(投)	1	1	1	1
盧國成	(二)	4	0	1	0
成埈	(投)	2	0	1	0
金大植	(打)	1	0	0	1
犧三四盜殘失 3 5 4 6 8 1		34	6	7	3

선린상		타수	득점	안타	타점
金雄大	(左)	4	9	1	0
金國鎭	(遊)	3	1	1	0
朴魯俊	(右)	1	1	1	0
朴正圭	(右)	0	0	0	0
李바오로	(投)	2	1	1	0
金健友	(投)	3	1	0	0
趙永一	(一)	4	0	2	1
李敞宰	(中)	4	0	2	2
趙弘紀	(捕)	4	0	0	0
金明培	(二)	4	0	0	0
朴志遠	(三)	3	0	1	0
犧三四盜殘失 1 2 2 0 4 5		32	4	9	3

投手成績	回數	打者	安打	三振	四死	失點	自責
成埈	6	25	8	0	2	4	3
文炳權	3	10	1	2	0	0	0
金健友	5	23	3	3	2	2	2
李바오로	4	18	4	2	2	4	0

◇개인상

▲최우수선수=文炳權(경북투수) ▲최우수투수成埈(경북) ▲우수투수=金健友(선린) 河仁秀(북일) 李弦澤(부상) ▲감투=朴魯俊(선린우익수) ▲수훈=文炳權(경북투수) ▲타격=①金賢澤(북일1루수)14타수8안타0.571 ②朴魯俊(선린우익수)18타수10안타0.556 ③金允榮(경북포수)10타수5안타0.500 ▲타점=①金相國(북일포수)7점 ②金賢澤 6점 ②李敞宰(선린중견수)6점 ▲도루=①李重和(청주중견수)4개 ▲미기=柳仲逸(경북유격수) ▲감독=具守甲(경북감독) 具本浩(선린감독) ▲지도상=權五甲(경북교장) 韓龍國(선린교장) ▲응원=北一高



◇榮光의 鳳凰大旗를 받고 — 폐회식에서 洪惟善대회부회장이 慶北高 주장 洪淳浩선수에게 영예의 초록봉황대기를 주고있다。

뛰어난組織力의 승리

"最強"자리지킨 慶北高

名門전통…끈질긴勝負정신

동창회의 熱誠的후원이 밑거름

스타없는「제2全盛期」구가

慶北高는 올해 뚜렷한스타·플레이어를 거의 갖지못했다。그러나 조직력이 뛰어나고 유격수 柳仲逸의 수비가 일품이다。

전통의명문답게끈질긴승부근성을 자랑하고 있다。慶北의 공격력은 수비력만큼 강하지 못하지만 결코 약하다고 할수없다。베이스·러닝、기동력등의 플레이는 국내 고교팀에서 정상급이다。

慶北高동문들이 야구팀에 쏟는 정성은 극성스러울정도。야구부후원회는3천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후배들을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없을정도의기금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특히 在京후원회장인 鄭喜澤씨는 후배들이 上京하면 매일저녁숙소를 방문、열성을 보이고 있다。

야구팀서는 1년 예산 3천만원중 학교 자체예산 2백만원을 제외한2천8백만원을후원회비및선배들이 충당하고 있다。이같은 선배들의 따뜻한 배려로慶北高 선수들은 정신적으로 큰힘을 얻고있다。

慶北高야구팀은 지난57년 황금사자기 대회서 준우승을 했을때 잠시 반짝했다가 4년뒤해산되었으며65년 본격적으로야구부를재건、慶北高 선풍을 일으켰다。

慶北은 26일 봉황대기를 차지함으로써 79년 황금사자기우승이후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慶北道교위가 실시한 야구선수 드래프트제로 인해 중학의 우수선수를 다른팀에 빼앗겨 내년부터는 다소 어려움에 직면할것 같다는것。

林信根 南宇植 黃圭奉 李善熙등 스타루수들을 수없이 배출했고 趙昌秀、姜文吉、裵大雄、具永錫、千普成、徐定煥등 야구팬이라면 누구나알수있는 우수선수들을 길러냈다。

67년 청룡기및 대통령기 우승을비롯、전국 대회 우승만도 20여차례에 이르며 준우승에 그친것도 6차례나된다。특히 71년 서울서 열린 4개전국대회를포함、6개대회를 제패、고교야구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奎】

田昌大·金春浩 동률선두

테니스常備軍 최종평가전 宋東煜은 3승3패 유지

4승2패

◇성난 표범처럼 볼을향해 질주하며 金榮煥의 날카로운 패싱공격을되받아치는 이우룡。

田昌大(明知大)는 27일 장충테니스코트서 끝난 81년도 테니스국가상비군 최종평가전 풀리그 마지막 날경기서 周昌男(大宇중공업)을 6—4、6—4、6—4로 물리처 4승2패를 기록했다。

이날 宋東煜(釜山工大)은 예상을 뒤엎고 선두를 달리던 金春浩에 3—1로 이겨 3승3패를 마크했다。

◇최종일 전적

田昌大 3 (4승2패) 6—4 6—4 6—4 0 周昌男 (1승5패)

宋東煜 3 (3승3패) 2—6 6—1 6—4 6—2 1 金春浩 (4승2패)

世界주니어排球서 한국男子팀C組에

오는 9월4일부터 14일까지 美國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릴 제2회 세계 주니어남자배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칠레、브라질、인도등과 함께 예선 C조에 속하게 됐다고 27일 대회조직위원회가 대한배구협회에 통보해왔다。

모두 16개국팀이 출전하는 이번대회는 4개조로 나뉘어 예선 리그를 펼친뒤 각조 상위 1·2위팀이 준결승리그에 오르게 된다。

◇예선리그 2조편성

▲A조=美國、西獨、멕시코、사우디 ▲B조=日本、소련、캐나다、쿠바 ▲C조=한국、칠레、브라질、인도 ▲D조=中共、스페인、이집트、아르헨티나

印尼 배구대표팀 轉訓하러 韓國에

인도네시아 남녀배구 대표팀이 전지훈련차 27일하오來韓했다。

오는 9월2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인도네시아배구팀은 이기간중 남자는 국내대학팀과 여자는 국내고교및 실업팀등과 연습경기를 갖는다。

裵錫哲 오늘壯途에

오는9월12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WBA(세계복싱협회)주니어밴텀급타이틀을 놓고 구스타보·바야스(아르헨티나)와 챔피언 결정전을 벌이는 裵錫哲이 매니저 柳和龍씨와 함께 20일낮2시30분 KAL편 현지로 떠난다。

水原·崇義등 준결에

全國 남녀고교籠球

제17회 쌍룡기쟁탈 전국남녀고교 농구대회 6일째 준준결승전이 27일 장충체육관서 속행, 여고부서 水原女高、崇義女高、善一女高、松原女商이 준결승에 진출했다。이날 水原女高는 文敬子의 활약으로 釜山東州를 74—69로 제압、준결승에 진출했다。그리고 崇義女高는 金銀淑 趙聖淑의 활약으로 裵眞淑 許賢淑이 분전하는 淸州女商과 시종 치열한 격전을 벌였는데 후반 淸州의 패스미스에 편승, 65—58로 이겼다。

崇義는 水原女高와 결승진출권을 다투게된다。善一女高는 朴賢美등 장신들의 활약으로 단신에다 중거리슛이 부진한 全北體高를 72—62로 꺾고 松原女商과 준결승서 대결케되었다。

한편 남고부 준결승서 龍山高는 田昌眞의 분전으로 北師大附高를 68—57로 격파하고 준결승에 나갔다。

◇제6일 준준결승

▲여고부

		전반	후반		
수원여고	74	32—35	42—34	69	부산동주
숭의여고	65	34—26	31—32	58	청주여고
선일여고	72	27—32	45—30	62	전북체고
송원여상	65	29—27	36—26	53	성덕여상

▲남고부

		전반	후반		
용산고교	68	40—37	28—20	57	북사대부

金良子 한국신 女性도 空氣권총서

金良子(기업은)는 27일 泰陵종합사격장에서 막을 올린 제9회 전국 여성사격대회 일반 공기권총서 378점을기록、종전기록 375점을 3점 경신하고 대회신기록을 세웠다。스탠다드 소총복사서 高英姬(국민은)는 585점으로 우승했다。

◇첫날전적(종목별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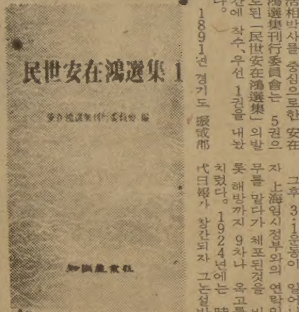
▲학교대항 여중부공기소총=장충여중1、100 ▲동개인=홍송기(장충)371 ▲스텐다드소총복사=고영희(국민은)585 ▲국가유공자 미망인회 대항공기소총=충북734 ▲동개인=김용규(충북)280 ▲공기권총여일반=김양자(기업은)378(대회신·종전375) ▲동여고=이숙이(영도여상)356

霸者 慶北高校팀 朴魯俊선수 問病

제11회 봉황대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서 우승을 차지한 慶北高선수들은 27일상오 具守甲감독 인솔로 善隣商 朴魯俊선수가 입원해있는 한국병원을방문, 朴선수를 위로하고 조속한 쾌유를 빌었다。

「民世安在鴻選集」1권나와

論說수록…5권까지 펴낼예정



한일투사이자 석학이며 언론인이었던 民世 安在鴻선생의 저술이 처음으로 총정리된다。

1973년부터 安在鴻선생의 유고정리작업을펴온 安浩相박사를 중심으로한 安在鴻選集刊行委員會는 5권으로된「民世安在鴻選集」의발간에 착수、우선 1권을 내놨다。

1891년 경기도 振威郡(현재의 平澤郡)古德面 杜陵里에서 태어난 民世는 한일합방을맞자 일본으로가 와세다대학 정경학부에서 공부한후 귀국하여 中央學校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후 3·1운동이 일어나자 上海임시정부와의 연락임무를 맡다가 체포된것을 비롯 해방까지 9차나 옥고를 치렀다。1924년에는 時代日報가 창간되자 그논설반에들어가 이후 朝鮮日報사장을 역임하기까지 계속 언론에 몸담게된다。

해방후에는 建準부위원장과 反託운동에 앞장섰으며 1950년의 국회의원選거에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되나 6·25로 납북됐다가 1965년 별세했다。

이선집은 1·2권에서 논설을 수록하고 3·4권에서는 그의 歷史論과 新聞論을、제5권은 수상과 기행문을담게된다。【知識産業社刊·9천원】

화제의 새책

「金永郎全集 評傳」未公開作品도 발굴

1930년 朴龍喆 鄭芝溶 등과「詩文學」同人으로 참가「내마음 고요히 고운봄길위에」「내마음 아실이」「모란이 피기까지는」등 한국現代詩史위에 純粹 抒情詩의 한 국치를 이룩했던 詩人 金永郎의 全作品을 집대성한「金永郎全集評傳」이 그의 死後 31周忌(1950년9월29일作故)만에 처음으로 文學評論家 金澤東(西江大)교수에 의해 文學世界社刊으로 편찬 간행됐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라는 제목의 이 全集에는 金永郎의 詩作品70여편 이외의 새로 발굴된 詩作品『새벽의 處刑場』등 6편과 처음 공개하는 永郎의 散文『熱望의 독립과 冷徹한 現實』등 15편을 수록하고 있으며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金永郎詩人 자신에 의해 한편의 작품을 여러차례 改作 추고한 작품들에 대한『金永郎詩의 改作대조표』를 연구자료로 정리、제공해놓고있다。

한국일보 詩壇

外出

許允禎

아까시아 꽃잎 바람에 흩날리듯

그대 배웅이 미소로

흩날린다.

오늘은 모처럼의 外出

어디선지 포롬 포롬 우는 새소리

나는 문득 그대와 함께

떠나자고 했었다.

기차 바퀴에 깔리는

하얀 연기

애절한 어느 화가의

못다한 사랑 이야기로

그날도

우리는 이렇게 훨훨 털고

혼자 外出 하는 것이라랑.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M ~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정렬, 김선남

학 생 모 집

1981년도 제2학기 본학원의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성서과(신·구약성경연구과정)
신 과(신·구약성경과 신학의 기초적연구과정)
목회과(목사양성을 위한과정)

2. 자 격
①성서과·신과 : 고졸이상으로 세례교인에 한함 (비 세례자는 졸업전까지 세례를 받아야 함)
②목회과 : 대학졸업이상으로 세례교인에 한함.

3. 학 제
성서과(2년제로써 연24주의 수업을 함)
신 과(3년제로써 연24주의 수업을 함)
목회과(3년제로써 연48주의 수업을 함)

4. 수 업 료
성서과, 신과 : $50
목회과 : $100(과목당 수강료는 $20임)

5. 수업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6시부터 10시까지

6. 수업장소 : 252 Bloor St.W. Room #301, #362 (지하철 이용하실분은 St.George에서 내리시면 됨)

7. 개강일시 : 1981년 9월14일(월) 오후6시

8. 원서교부및 교부처
①1981년 8월15일~9월14일
②원서교부처 : Lee's Printing(2157 A Weston Rd. 244-2301)

9. 특 전
①최우수 성적자 2명에게는 해당학기의 수업료를 면제함.
②대학졸업이상으로 신과와 목회과의 졸업자가 계속해서 공부하기를 원할때는 자매학교 Christian Center College에서 1년간 (30학점이상) 공부하면 B.A. in Biblical Study, 또는 M.A. in Biblical Study 를 받을수 있으며 본 학원만 졸업한 시에는 양교합동 명의의 Diploma가 수여됨.

10. 주의사항
①재학생은 개강전에 등록만 하시면 됨.
②편입을 원하시는 분은 일단 문의하시고 등록하시기 바라며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교무처에 의논하시기 바람.
③본교의 수업료는 세금에 면제 됨.
④목회과는 5명이상이 되지 않을때는 일단 보류됨(목회과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기 원할때는 LA의 총회 직영 신학교나 CCC에서 일년간 이수하면 안수 받을 수 있음)

11. 문 의 처 : 977-5202 · 423-9324 · 244-2301

성서과는 장로집사훈련을 목적하고
신과는 목사 훈련을 목적함.

1981년8월15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카나다노회 칼빈신학원 원장 계화삼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 인

"급 구"
소형차를 갖고 계신분으로 주3회 식품점에 신문 배달하실분 구함.
☎: 533-2361 MRS. KIM

쥬스바에서 피트타임여자 헬퍼구함
☎: 368-9206(2시이후)
438-0403 미세스 유

키친헬퍼및 접시닦을 분 구함.
일본어를 하실 수 있는 분 환영
☎: 960-6405 4 AVENUE ROAD. TOR.

베이비시터 구함:
입주하셔서 베이비시터 하실분
☎: 535-4441 미세스 김

가게 경험있는 남자 FULL TIME HELPER구함
☎: 597-1115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풀, 파타임)
STEELE & DON MILLS 지역
☎: 491-1931

집에서 여자용 세타를 짤수 있는분.
계속해서 일할 수 있음. 영어회화 가능한분
☎: 665-2265, 488-5170, 488-4498

식당 호모사(HOMOSA)
웨이트레스 구함: 영어회화할 수 있는 분
☎: 466-2250

애기 봐줄사람 구합니다: 출퇴근하셔도 좋고, 같이 계셔도 좋습니다.
☎: 244-2043, 248-6065

구 인(사람 구함)
공장에서 일하실분 구함. 주 나흘간 낮과 밤 시후트 워크
주소: 971 MATHESON BLVD. MISSISSAUGA.
☎: 625 1433

PHOTO샵에서 일할 여자분구함.
유경험자에 한함
☎: 746-2120

재봉틀 회사에서 직원모집
트레이닝 받으실분 환영. FINISHERS SMALL PARTS JOINERS, PRESSERS, CLEANERS AND EXAMINERS, SERVICE PERSONS
일하기 좋은 조건에 수입이 많음. 새가게만 사용
일하는 시간: 오전8시~오후4시
아니면 오전7시~오후3시
IRVING POSLUNS CO.,
637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5V 1A8
(4층의 MRS. FRANCIS를 찾으세요)

사무실 청소할 분: 부부로서 경험있고 영어회화 가능한분, 파타임
☎: 298-3383 마이크

베이비 시터 구함:
입주차 우대함
☎763-7450 미세스. 김

웨이터, 웨이트레스 구함
일본 레스트랑
☎: 977-9519

FULL TIME HELPER구함: 남자 유경험자에 한함 막일과 CASHER를 함께 할 사람요.
☎: 534-3338

도나스 샵에서 캐시어 구함
여자(아침8시~오후4시)
남자(밤12시~아침8시)
☎: 531-2689 1468 QUEEN ST. W.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구함
(오후5시~오후11시)
☎: 466-3995 QUEEN E. 지역

매매및 양도

야채가게 팝니다
☎: 690-6967

버라이어티 스토아매매:
주매상 $2000, 권리금 $8000, 렌트 $590
뒤에 살림집 방2개 ☎: 259-0869

프렌차이즈 베커스토아 매매:
1169 WOODBINE AVE.
☎: 423-7939

유명메이커 제품만 취급하는
TV, 스테레오 비즈네스에
흥미있으신분 연락바람.
직접와 보십시요.
☎: 745-5555 미스타 전

그로서리스토아
매 매
☎: 265-0400 MR. 이그나지오

스키 휴양지 부근에 있는 전망있는 스토아 매매
에드·구마가이에게 연락바람.
"VARIETY & GROCERY STORE"
Near Horseshoe valley Ski Resort.
Modern building, large living quarters, great potential. Present Gross $150,000.00. 14% mortgage. Asking $149,000.00.
For details contact Ed Kumagai
CENTURY 21 Don Campbell Real Estate Limited
1-705-325-1366 or 1-705-325-9034.

가게있는 건물 팝니다:
주매상 $3,500 이상
☎: 690-3382

가정형편상 가게를 급히 팝니다.
주매상: $3천2백(좋은 Offer줌)
☎: 781-7305

매 매
서울식당을 싸게 팝니다. 리스: 3년3개월
☎: 532-0602
미스타. 정

바라이어티 스토어 매매: 성업중인 스토어를 형편상 급매코저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531-0773 김 (오후6시 이후)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조그만 가게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람
61 MAIN ST. TOR. ☎: 694-7848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배리지역)
주매상: 8,000달러, 리스: 4년+5년
직접방문 요망
☎: 705-726-5224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 급매
15년 리스, 아스킹 $165,000
☎: 535-2804 미세스 김

부 동 산 매 매
동부끝에 있는 방 여섯개의 집.
즉시 입주가능, 모게지가 없음.
ASKING $79,500.00
☎: 461-5463

22년된 꽃가게 매매: F. T. D와 U. F. C멤버쉽이 있음.
☎: 826-1992, 저녁6시이후 826-3246 SANDER JOHN

집·방세·하숙

집세놓습니다: 스카보로지역
방4개, 화장실2개, 지하실 있는 단층집
☎: 968-9450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781-0200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 AM~8 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렌미용실 미세스·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일반상점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637A BLOOR ST. W. TOR. (은하보석상 옆)
공 장: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535-0647, 465-1722 대표: 송 관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구독신청☎ 533-2361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에어콘·히팅·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DALMER'S시설판매수리
에어콘·전기·개스·워킹쿨러, 후리저
☎: (B) 746-3840, (R) 493-9945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749-3178 김 진 환

Can Am Coin Investments Ltd. 25년간 경력
금동전, 은동전을 최고가격으로 드립니다.
329 QUEEN ST., WEST · TORONTO, CANADA · M5V 2A4
Telephone: (416) 366-3061 - 366-3062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매일10AM~8PM ☎: 922-7090 뜸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기 타

번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통역 M4A 2R1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746-2120 조 혜 숙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630-6602 나 라 운 수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651-9324(B), 226-5430(R) 번 달 원

L & K AUTO COLLISION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주간女性

普光寺立佛像완성
높이12.5m 무게5百40톤

높이 12.5m 돌무게 5백40톤에 달하는 거대한 立佛像이 경기도 楊州郡白石面古靈山에있는 普光寺경내에 조성돼 30일상오11시 大佛봉안식이 거행된다.

文化短信

文學세계 作家賞 文學世界社 제정

文學世界社는 한국 문학의 發興을 위해 새로운제도의 「文學世界作家賞」을 제정, 오는 10월에 첫수상자를 발표한다. 「文學世界作家賞」은 新人·기성을 가리지 않고 심사대상으로 삼으며 수상자에게는 순수창작에만 몰두할 수있도록 매달 30만원의 생활비를 10개월에 걸쳐 지원한다. (☎7548)

民族詩짓기大會

사단법인 민족문화협회(이사장 李殷相)는 제6회 전국민족시(시조) 짓기대회를 개최한다. 원고마감은 예선이 오는 9월10일까지며 본선대회는 10월3일 열린다. 시상종목은 일반부, 고등부, 중등부로 나누어 각부문별로 문공부장관상과 장려금, 장학금이 지급된다. 예선제목과 응모장소는 다음과 같다. ◇예선제목▲일반부(대학생포함)=독도▲학생부(중·고등부)=들국화. ◇응모처=서울鍾路區苑南洞194(창곡빌딩601호·㉓9981)

現代·三星·三陟·大成 4社공동
베링리버炭田 探査착수

現代綜合商事등 4개민간 상사들은 내년초부터 미국 알래스카 베링리버炭田 개발을 위한 정밀탐사에 착수키로 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現代綜合商事, 三星物産, 三陟炭座, 大成炭座등 4개사는 지난주 콘소시엄을 형성, 알래스카 원주민회사인 CNI社와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84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베링리버炭田중 3만에이커에대한 탐사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4개상사는 82년과 83년에 각각 3천m씩, 84년에 8천m를 굴진, 탐사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4개상사는 주가치카드코(가칭)란 합작회사를 설립했으며 자본금은 7백50만달러로 50대50비율로 출자하되 운영권은 4개상사가 소유하는것으로 되어있다.

블론디 本社特約·連載漫畫 딘·영 作

"뭘먹는게 좋겠소?" "「주방장의 기쁨」이란걸 들어 보시구려" "왜 「주방장의 기쁨」이라고 부르는거요?" "주방장이 먹다남은음식을 몽땅치워 버릴수 있으니까요"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流星의 賊 <169>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山空花自紅 ⑲

먹살을 잡힌 여림은 허위적거릴뿐 말은 하지못했다. 너무나 목을 죄었기 때문이다. 계남은 여림을 어디에다 내동댕이칠까하고 두리번거렸다.

초승달의 희미한 빛 저편에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는 듯했다. 그러자 그곳으로부터 말소리가 있었다.

『청은이, 그 녀석 뺨이나 한대 얌전히 갈겨주고 이리로 오게』

『당신은 누구요』

계남이 소릴 질렀다.

『내가 누군진 차차 알게 될거다. 아뭏든 뺨이나 한대 갈겨 놓구 이리로 오래두』

점잖은 음성이었다.

『안되오. 이런 자를 하늘 아래 두어 선 안되오. 죽여버리겠소』

하고 홍계남이 여림을 힘껏 나꿔채려는데 달빛 속의 선비는

『그 자를 죽여선 안돼. 그리고 죽일것 까지는 없지 않는가』

하고 만류하곤 덧붙였다.

『그 까닭을 내가 곧 말할 터인즉 뺨이나 한대 갈겨 놓구 이리로 오게』

홍계남은 여림을 끌고 가까운 곳에있는 정자나무 기둥에 부딪쳐 놓고 왼팔로 먹살을 쥔채 바른 손으로 여림의 뺨을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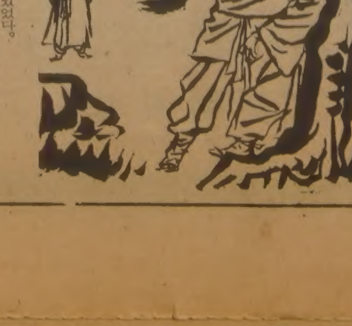
『찰싹』

하는 소리가 메아리를 남겼다.

계남이 먹살을 놓자 여림은 「으음」소리를 남기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실신한 것이었다.

계남이 그 꼴을 내려다 보고 뱉듯이 한마디 남겼다.

『여우 같은 녀석!』



『이리로 오게』

하는 소리가 등뒤에 있었다.

계남이 손을 털털 털고 돌아섰다. 선비는 걷기 시작하고 있었다. 따라오라는 시늉을느꼈다.

계남이 그와 나란히 서게 되었다. 그 순간, 그 선비가

『나는 이영이란 사람이다』

며칠 전 사직교에서 만난 사람이란 걸 알았다.

선비는 짤막이 한마디 하곤 말없이 걸었다.

그리고는 청교(淸橋)를 건너 궁동(宮洞, 지금의 을지로 4가부근)으로 와서 아담한 소슬대문 앞에 서서 기침을 했다. 대문이 소리없이 열렸다.

하인으로 보이는 중로(中老)의 영감이 공손하게 이영을 맞아들여 사랑으로 안내했다. 사랑의 한칸에 촛불을 밝히고 주렴을 드리운 곳이 있었다. 이영은 그방으로 들어서며 홍계남에게 손짓을 했다. 들어오라는 뜻이었다.

방 한가운덴 흑단으로 보이는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청자 접시가 있어, 접시에서 가느다란 푸른연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약간 코를 자극하는 향기가 있는듯 했는데 그것은 모기를 쫓는 향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산수가 그려진 병풍을 등지고 이영이 앉았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이영을 마주 보는 자리에 계남이 앉았다.

『홍계남이지?』

이윽고 말이 있었다.

『예』

이영은 한참 동안 계남을 응시하고 있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소리는 너무나 깊고 간절했다. 계남의 등을 썰렁하게 스쳤다.

『나이가 몇이냐』

『스물 한살입니다』

그리고 또 침묵이 흘렀다.

CENTRAL AUTO -SERVICE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길창세